

조형

사회과학 7-82-3

연구세미나 보고서

한국의 도시여성과 직업

공동연구자 : 조 형 (이화여대)

조 혜 정 (연 세 대)

조 옥 라 (서 강 대)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824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견훤배정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연구세미나 보고서

한국의 도시여성과 직업

공동연구자 : 조 형 (이화여대)

조 혜 정 (연 세 대)

조 옥 라 (서 강 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간행사

유네스코는 오래전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철폐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부단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노력은 금세기에 들어와 여성 자신들의 적극적인 자기인식과 사회참여에 힘입어 두드러진 인식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유엔 10개년계획’(1975~1985) 세계대회 보고서는 “세계인구의 절반으로서 세계 총노동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실제로 총노동시간의 약 2/3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소득의 1/10을, 그리고 세계 자산의 1%미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속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아직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뚜렷한 추세이고 보면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슬기로운 적응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산업구조가 더욱 전문화·분업화될 것을 감안할 때, 이제 나라 안팎에서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같은 취지에서, 지난 2년에 걸쳐 '여성과 직업'을 주제로 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던 바, 이제 그 결과를 보완·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비록 그 접근방법에 있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다소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앞으로 더욱 새로운 연구와 인식을 위해 좋은 자극제가 되어 보다 나은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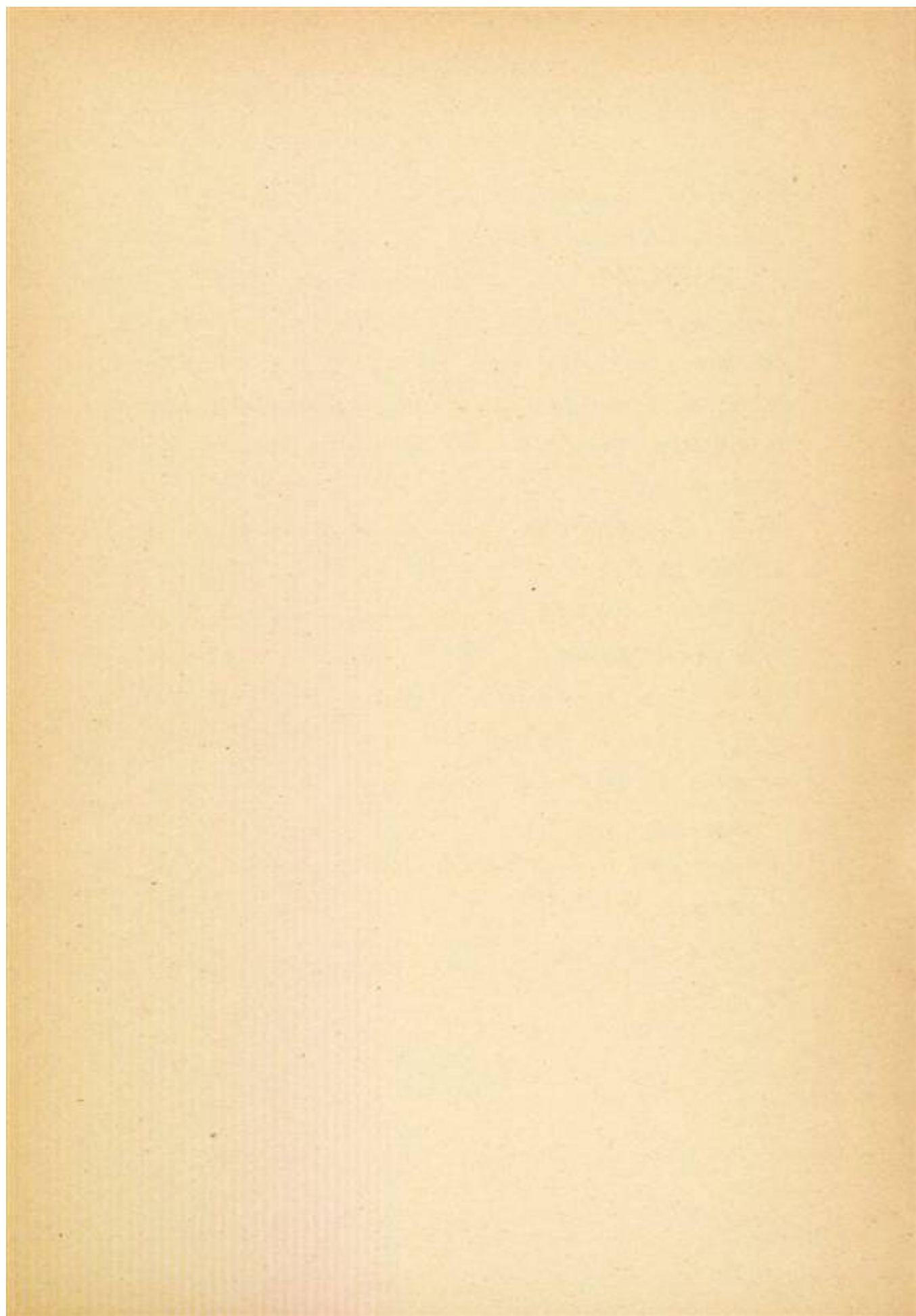
1982. 1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 봉 식

< 목 차 >

간행사	
1. 개 관	1
2. 여성취업의 전반적 현황	3
3. 사무직 여성	
(조옥라, 서강대)	7
4. 전문직 여성	
(조혜정, 연세대)	21
5. 도시저변의 근로여성	
(조 형, 이화여대)	
(조옥라, 서강대)	51
6. 한국의 도시여성과 직업 -종합과 전망-	86
참고 문헌	
토론(요약)	100
부 록	
세미나 참가자 명단	



1. 개 관

본 연구는 근대 산업화에 따라 생긴 직종(전통사회에서 그와 동등한 것을 찾을 수 없는)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안채"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매우 격리된 생활을 하였던 여성들이 근대화 과정을 통해(특히 평등교육과 업적위주의 직업구조에 따라) "바깥세상"인 사회에 활동하게 되었다. 근대화가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은 얼마나 새로운 근대적 직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얻게 된 소득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학적 방법과 인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구했다.

일차 단계로서 1981년 우선 전문직 여성 및 화이트 칼라직(White-collar) 여성연구를 했으며, 이차단계로서 1982년 노동직에 종사하는 여성연구를 끝냈다. 현대의 가정주부 역할 역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직종으로 평가될 지 모르나 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전통사회의 "모성"과 "안사람"의 역할로 이해 평가되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첫째에 다룬 대상은 먼저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로 주로 대학출신 이상이며 평생직이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전문직은 아니나 어느정도 교육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직으로 평생직이라기보다는 결혼전까지만 취업하는 경향이 짙은 분야였다.

2차년도에는 도시저변에 살고 있는 근로여성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학력도 낮거나 거의 없는 계층으로 경제활동은 서비스·판매·생산직에 속

해있다. 이 분야는 질문지 면접과 지역에 연구보조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얻은 자료를 비교, 보완하여 가장 사회학적 분석과 인류학적 관점이 종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년에 걸친 본연구는 실제 연구보고서를 쓴 연구자들 외에도, 1년 동안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둔 여러 여성학자(김애실, 이은영, 문은희, 이인호 교수 등)들이 매달 모여 토론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있다. 현대의 여성을 세 계층으로 나누어 종합적인 고찰을 기도했을 뿐 아니라 여러 학자의 종합적 의견이 모아졌다는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취업의 전반적 현황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70년의 368만명에서 1980년의 544만명으로 약 1.5배가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37.5%에서 41.6%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3.6%에 비해 상당히 낮다(김애실, 1981).

각종 통계자료로 볼 때 비경제활동 이유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통학(65%), 연로(15%), 가사(11%), 기타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가사(69%), 통학(18%), 연로(11%), 기타의 순위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여성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집안 일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미산업국가에서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활동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이효재, 조형, 1976; 주정일·박영혜, 1980). 한국의 학력별 취업구성비율(1979) <표1>을 보면 전체 취업여성중에서 2.7%만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3분의 1 정도밖에 취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직업별 취업자(1980) <표2>를 보면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체 총수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에는 32.8%를 점하고 있다. 이는 1970년도의 18.4%와 13.5%로부터의 괄목할 만한 증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숫적

증가에 비하여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다. 전산업에서 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80년도에 남자의 42.3%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남녀간의 평균적 교육수준, 경력, 근속년수 차이 그리고 남녀의 성차별에 의하여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노동수요면에서 볼 때 김애실교수(1981)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산업과 고용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는 여성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김교수는 이미 노동공급면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노동력의 공급에 있어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고 한다.

〈표 1〉 한국의 학력별 취업구성비율(1979)

학 력	구 성 비 율 (%)	
	남	여
국 민 학 교	17.7	34.9
중 학 교	31.2	40.0
고 등 학 교	34.1	22.4
전 문 대 학	2.9	1.0
대 학	13.9	1.7

자료: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1980.

< 표 2 >

직업별 취업자

단위 : 1,000 명(%)

	남 자		여 자		여자/총수(%)	
	1970	1980	1970	1980	1970	1980
총 수	6,167(100.0)	8,462(100.0)	3,578(100.0)	5,243(100.0)	36.7	38.2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377(6.1)	545(6.4)	85(2.4)	185(3.5)	18.4	25.3
사무직	496(8.1)	852(10.1)	78(2.2)	415(7.9)	13.5	32.8
판매	687(11.1)	1,116(13.2)	512(14.3)	867(16.5)	42.7	43.7
서비스	269(4.4)	454(5.4)	367(10.3)	630(12.0)	57.7	58.1
농림	2,681(43.5)	2,462(29.1)	1,991(55.6)	1,976(37.7)	42.6	44.5
어업	142(2.3)	151(1.8)	84(2.3)	63(1.2)	37.2	29.4
생산	1,513(24.5)	2,883(34.1)	461(12.9)	1,106(21.1)	23.4	27.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연구연보』, 1980.

그러나 잠재노동력에 비하여 노동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각 산업과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양과 질적 조건이 취업인구의 크기와 구조적 특성을 결정하고 있다(이효재, 조형, 1976). 여성의 경우 이러한 조건하에 결혼이 취업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기는 하나, 이를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 본

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교수, 의사, 법률가, 은행 중견행원 등 전문직과 간호원등 기술직과 교사들은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취업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사무직, 비서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미혼(88.3%)이다. 다음 공장근로자와 도시노동자로서의 차장들은 미혼으로, 행상인이나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들은 기혼여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위에서(Table 1참고) 결혼이 가능한 직종인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3.5%밖에 안되고 있다. 그나마 이 통계에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교사, 간호원 등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아주 극소수의 여성이 기혼으로서 남성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결혼이란 변수는 학력과 함께 여성취업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32.8%에 달하는 사무직여성의 88.3%가 미혼으로, 이 통계는 결혼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는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사무직은 가장 현대적 조직에 밀착되어 있는 취업이나 가장 보수적인 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반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인과 교육이나 기술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결혼 여부는 취업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직업관, 가족관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전통적인 여성에 관한 가치관은 집안일을 전담하며 가족에 종속적인 존재로서의 여인상을 이상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여러가지 목적과 필요에 의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세 부류 여성들의 일의 내용과 그들의 가치관의 이해는 현대를 사는 한국 여성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리라 기대된다.

3. 사무직 여성

3-1 문제제기

현재 현대 교육의 보급율에 비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취업율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전문학교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취업율은 국민학교와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의 취업율에 뒤떨어지고 있다(이효재·조형, 1976:282).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경제적 지위에 있는 여성이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에 안착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녀차별이 직업상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제한점은 뿌리깊이 박혀 있어 그 개선책이 요원하기조차 하다(이효재·김주숙, 1976).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비슷한 학력을 지닌 남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 발휘할 수 있고 대우받는 취직의 문이란 아주 좁다. 극소수로 뽑는 중견행원, 언론계와 교사직 또는 기술 전문직등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대학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함께 사무직, 비서직에 종사하고 있다. 소수에 해당하는 행정 관리직 경우는 미혼자가 대부분이나, 일반 사무직인 경우 절대다수(88.3%)가 미혼

이다. 이들 사무직원들은 결혼 전까지 종사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개인 기업에서 번역사나 도안사의 특수 기술직을 제외하고 여직원들은 결혼후 그만 두는 것을 내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연한은 2~4년을 벗어나지 못하며(A, B재별경우) 전문성을 지니기가 힘이 들다. 새로운 사람을 항상 대치시켜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훈련시키고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그만 두어 버려 인력관리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업무 내용도 항상 보조원의 역할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보조직이기 때문에 인력교체가 용이하다. 경영자측에서도 여성 취업자들을 소모품과 같이 일정기간만 쓰려고 하며, 굳이 이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서두르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대우란 현상유지이며, 승진이나 연수에 있어 비슷한 자격을 갖춘 남자 직원에 비하여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 취업여성에 관한 연구는 여러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그러나 사무직 여성의 문제를 사회 문화적 구조속에서 파악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의의있다고 하겠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과 또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여성관은 그들의 직업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미혼 직업여성이 부딪치는 문제에 접근하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사무직 여성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그들의 위치가 복

잡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들은 어느정도 수준의 교육을(고등학교 졸업 이상) 받은 계층으로 현대사회의 기업이라는 체계 속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이러한 현대여성임에 반하여 극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절대적 가치관에 따라 직장의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전근대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따라서 현대를 살아 가고 있는 여성에 있어 직업이란 무엇이며,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 중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어느정도 의문을 풀어주리라 기대된다.

3-2. 접근방법

취업여성이 직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한국사회구조에 기인된 분야로서 취업방식, 업무상의 차이, 직장내 승진과 대우, 업무처리에 한국적 상황이라고 표현되는 사회관계망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 차원에서 직장 분위기, 결혼관, 동료관, 자신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해당된다. 이 두 측면이 모두 취업여성이 느끼는 현상들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이 질문지 외에도 개인적인 면담을 11명과 각각 2~3시간에 걸쳐 했다. 면담자는 여직원, 남직원, 인사 담당관을 포함시켰다. 질문서는 남녀 1대3의 비율로 배부하였다. 직장은 세 개 시중은행, 대·중·소 모두 포함한 개인 기업체에 무작위로 분배하였다. 현재

까지 여성용지 103 장 남자용지 32 장이 회수되어 분석되었다. 여성용 질문지 뒷부분에 첨가된 Open-ended 질문은 개인적인 면담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질문지의 분석은 직장내에서 여직원들이 채택하고 또한 요구되는 남녀간의 문화적 규칙을 찾기 위한 보충적 의미를 지닌다.

A. 사회구조적 문제

채용방법*

업 무

업무처리방식

승진과 대우

B. 문화적 문제

분위기

결혼관

자신에 대한 기대치

reference group

3-3 분석과 토의

우선 여성 응답자들의 근무 연한은 34%(35명)이 2~4년이며 다음이 4~10년 30%(31명)이며, 0~1년이 17%(17명), 1~2년 15%(15명)로서 보통 근무연한 2~4년이라는 표준치에 가깝다. 입사는 학교를 통한 채용 38%(39명)과 공개채용 34%(35명)이 친지를 통한 채용 20%(21명) 보다 높다. 직장을 갖게 된 동기로는 사회경험이 가장 많은 빈도(274점)를 보였고, 다음은 능력활용(239점)이었다.* 봉급중 집에 보태는 비율이 50% 이상인 여직원은 36%(37명)나 되며 전혀 안보태는 경우

* 점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한 항목에서, 우선 순위가 나온 것을 역으로 지정한 숫자와 곱하여 각 답을 합산한 것이다.

는 2명뿐이 없어 경제적인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에 직장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항목에는 사회경험(288점)이 가장 높고 다음이 대인관계 및 사교(275), 자기발전(273)으로 목돈마련(151)보다 훨씬 앞선다. 현재 직장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어느생활에 가장 만족을 느끼냐고 물었다. 친구와의 교류(297), 가족과 보내는 시간(275)이 직장동료관계(199)나 직장일(161)보다 훨씬 더 많이 지적되었다. 위 두 항목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점이 있다. 즉 사회경험의 보람은 있지만 직장생활이 그리 큰 만족감을 갖다 주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직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는 매우 중요하다(48명, 47%), 중요하나 내가 꼭 안해도 된다(45명, 44%)가 비등하게 나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직장업무에 긍정적임을 보여 준다. 승진이 가능성에 대하여 65%(67명)가 현직 그대로일 것이라는 업무의 한계에 비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함을 엿볼 수 있다.

구조적인 면에서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보다 평균연령, 교육수준이 낮으며 업무자제도 보조적인데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직장내에서 느끼는 바를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직장에서 여자들을 채용하기를 꺼린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되느냐는 항목에 세가지를 고르는 사항에 대하여, 여직원들은 '여성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 결여'(73명)와 '여성의 가사

책임에 따른 이중역할' (73명)을 지적했다. 똑같은 물음에 남직원은 '여자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많다' (23명),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결여' (22명)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자 자신의 의욕결여가 여성 취업의 문제점으로 남녀사원 모두 인정하나, 여자의 경우는 가사책임에다, 남직원은 여성의 능력부족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여자상관에 대한 항목에도 비슷한 사고의 궤리를 볼 수 있다. 남자직원은 여자 상관이 사사로운데 신경을 많이 쓰며 (88점), 결단력이 부족하며 (71점), 남보기에 안 좋다 (53점)고 여긴다. 이는 그들이 여자직원이 일에 의욕이 없고 (30점)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27점)는 평가 일치한다. 그래서 남자 응답자 32명 중 21명 (67%)은 여자 상관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여직원들은 여자 상관이 사사로운데 신경쓰며 (392점), 부하직원 요구에 더 예민하지만 (174점), 결단력이 부족하리라 (133점) 간주하고 있다. 또한 여자직원 자신들은 남자보다 눈치가 빠르며 (286점)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155점)고 느낀다. 요약하자면, 신경을 여자들이 평직원이든 상관이든 더 많이 쓴다는데 동의하지만 남자들은 그것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직원은 약간 더 긍정적으로 받아 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자직원 자신도 여자 상관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수 (17명)가 좋아하는 사람 (13명)보다 많아 남자들의 부정적 선입감을 압도할 만한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朱貞一, 朴英惠 (1980)의 연구보고에서 남자가 여성능력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남여평등 쪽으로 끌어 올리려고는 하나 결국 많은 면에서 여성 하위 의식을 펼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과 통한다. 특히 대학생층에 그러한 경향이 강해 본 연구결과와 연관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와 연결지어 결혼관에 따른 직업관을 살펴 보았다. 주목되는 점은 “남편의 성공이 곧 여자의 성공이다”라는 항목에 대다수(72%) 74명이 찬성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부인이 직장에 나가면 남편의 출세에 지장이 있다는 보수적 항목에 92%(95명)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해 낼 수 있지만(73%),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겠다”는 수(25명, 24%)에 비하여 “다니지 않겠다”는 수(37명, 36%)가 많은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의식은 어느정도 되어 있지만 생활인으로서 직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직장내에서 여성 자신이 느끼는 남여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첫째, 직장내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봉사정신(268점), 여성적 부드러움(249점)을 능률적 업무수행(217점)과, 자상함(117점)보다 더 기대된다고 했다. 두번째 항목은 직장에서 남자 동료를 대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인데,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247점),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 주어야 한다”(228점)가 “봉사적이고 친절해야 한다”(197점) “특히 유의할 점이 없다”

(178 점)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즉 여성 스스로가 여성적 부드러움을 갖고, 남자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며 봉사정신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기대된다고 관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앞에서 살펴 본 직장을 얻는 동기, 만족도에 대한 항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사회경험과 능력활용을 위하여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직장일이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생활의 만족을 얻지 못함을 보았다. 즉 사회경험이나 능력활용의 기회를 얻으려고 들어온 여직원에게 막상 동료 남자직원들은 봉사정신과 여성적 부드러움을 기대한다고 느끼고 있다. 직장내에서 여직원들은 직장인에 앞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는 동료 남자직원에 의하여 일에 대한 애착 결여와 처리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전적인 여성의 비슷한 동의를 앞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여성자신의 기대감, 평가, 이와 비교된 남직원의 견해를 살펴볼 때 여직원 자신도 뚜렷한 직업의식을 갖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 질문서에 따른 분석 결과와, 질문서 작성 전과 후에 개인적 면담을 통한 현황 파악을 비교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접근해 보겠다. 질문지 끝에도 자신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쓰는 여백을 두었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호칭 등을 포함한 예의, 권위주의, 승진과 대우의 남녀차별, 개인 심부름 등이다. 이렇게 나열된 불만들의 실체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개인면담 등에서

수집 하였다.

호칭의 경우, 어느 직장이나 입사하면 여자는 Miss 아무개이며 남자는 ○○○씨이다. 그러다가 직책이 올라가면 남자는 ○대리, ○과장 등이 된다. 거기에 비하여 여자는 항상 Miss 아무개이다. 이와 함께 여직원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는 남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 심부름이라든지, 차심부름 같은 개인심부름을 상사가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족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여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나, 그것이 지나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없는 농담은 여직원을 속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

다음에 업무상 너무 뚜렷한 남녀구별은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별은 업무상 주업무와 보조업무를 남녀일로 규정짓고 승진과 대우에서 남녀간 차별을 두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흥미있는 것은 질문서에 기록된 불평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여자라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심부름조차 시킨다고 하지만, 대우와 승진에 관한 사항은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개인면담자들은 모두 대우와 승진에 대한 불평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면담과 질문지사용이라는 조사방법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 표본집단 성격의 차이에서 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다만 직장내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관념이 입사후 2~3년 후부터 생긴다는 언급으로 보아, 회사일에 익숙해졌고, 자신들과 비교하여 남직원들과 대우차이가 커짐에 따라 의식화되기 시작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될 뿐이다. 일단 처음 시작한 일에 숙달되어진 다음, 더 이상 수련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 사무직 여직원들의 업무이다. 이에 비하여 남직원들은 승진과 함께 책임업무량이 점차 늘어난다. 여기서 여직원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직원이라고 무조건 제쳐 놓고 회사일을 처리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 그래 자연 많은 여직원은 남직원과 동료적 유대감이 없다고 한다. 능력을 개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여직원들 능력개발의식이나 일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기 모순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직원들은 근무년수가 많을 수록 일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고 한다. 불만이 별로 없다는 층도 특별히 현직장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 가 봐도 별 차가 없다고 보기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여직원은 맡겨진 일만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성 자신이나 동료 남직원들이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무직 여직원들이 결혼전까지 사회경험도 할 겸 능력활용도 할 겸 직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여직원의 취업동기로 볼 때 자신의 성공을 직장에서 성취하려는 남직원에 비하여 여직원의 직업의식이 낮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많다. 이 가능성이 직장내의 업무와 대우로써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심부름을 포함한 기타 업무와 남자직원의 보조업무를 규정짓는 업무내용과 대우에서 위계적인 요소가 전통적 남존여비 사상과 함께 여직원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직

원의 일에 대한 의욕 내지 애착결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은 직장의 여직원 제도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해 버릴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여직원들도 그들의 일상 직장생활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질문서에서 보았듯이, 여직원들은 남자 동료직원이 봉사정신과 부드러움을 능률적 업무수행보다 더 요구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는 인격적인 동료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직원들은 직장내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평에서, 그러나, 대부분 문제를 근본적인 직장내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념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짙다. "아니꼬운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제제 있게 반박하기 보다는 거의 "참아야 한다"는 태도의 여성 관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여직원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는 여직원 전체의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의식화가 덜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자신이나 동료 남직원이 생각하는 여직원상은 그들을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 직장은 비공개 공개경쟁 방식을 취하고 있고 여자들만을 따로 뽑고 있다. 유수한 A실업에서는 500여명의 여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한 추천으로 서류심사후 모집정원의 2배를 뽑아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내고 있다. 이때 면접에서 중요시하는 것으로 성적, 용모, 성격, 태도 등인데 용모가 결정적인 요소로 실제 작용한다고 실무자가 전한다. 여

자고등학교 졸업반 한 교사도 성적차보다 용모에 의하여 취직이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결국 회사측이 기대하는 것은 업무능률의 극대화보다는 여성적인 매력과 역할수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혼후 그만 두어야 한다는 내규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직장내 남녀 직원간에 동료로서의 상호유대감이 이루어 지기는 힘들기 마련이다. 소수의 관리직으로 승진한 여직원들도 남자 직원들의 사회관계에 동료로서 들어가기 힘들어 정보에 어둡다고 한다. 남자동료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개인면담에서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사무직 여직원들은 평균연령이 남자 직원보다 낮고, 교육수준도 낮으며 업무도 보조적인 데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구조아래 상사나 남자 직원들의 사사로운 심부름도 해주고 개인적 농담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권위의식의 대상자가 되면서도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자존심까지 살피가면서 보조업무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여직원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직원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 가족제도 하에 흔히 婦德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집안의 흥망성쇠, 자녀의 앞날이 부녀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를 위해 봉사정신과 함께 가장을 떠받들어야 했었다. 부녀자의 지위는 낮게 평가되었다. 여성의 뒷받침으로 가계의 버대를 이루지만 그들의 일은 남자의 바깥일보다 훨씬 경시되었다. 이는 직장내 사

무직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논리이다. 또한 여자는 가정바깥 일에는 능력이 없다는 전통적 사고는 직장내에서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여자들이 너무 사사로운 데 신경을 써서 채용을 꺼릴지도 모른다는 남자 직원들의 사고체제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는 李光奎교수(1980)가 지적했듯이 외부의 급속한 변천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심의 우리나라 直系家族制度의 근본구조가 변하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기인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앞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여직원의 다양한 보조적 역할은 그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 좀 곤란할 수 있다. 여성이 결혼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기 보다는 한 성인 남성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합부로 미혼의 여직원에게 하듯이 시킬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농담이나 반발을 하는 informal한 관계를 계속하기 힘들다. 한 남직원은 남의 부인인 여직원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힘들 것 같다고 면접에서 말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업무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직원에게 요구하고, 위계적인 직장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 B재벌에서 기혼 여성 42명을 2년기간으로 채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속될 지 그 추세가 매우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사무직 여직원들의 문제들을 그들의 관점과 남자 직원의 기대, 회사 업무구조와 관련시켜 살펴 보았다. 연구된 표본집단이 그리 크지 않아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우리가

있지만 자료분석으로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직장 여직원에 대하여 自他가 공인하는 “일에 대한 애착결여”는 단편적 현상만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직원 채용방법, 대우, 승진, 바람직한 여직원상과 결부되어 분석되어야겠다.

둘째,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된 한국 현대사회에서 남녀 직원이 조명하는 바람직한 “여직원상”은 전통적 여성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자신은 이론상으로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별을 강요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체계적 의식화나 의지는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전 문 직 여 성

4-1 대상과 문제의 제기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라 직업구조가 세분화되면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직종을 전문직이라 부르며 대개 대학 이상의 교육을 거친 후에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전문직종으로는 의학계(의사, 간호원, 약사), 교육계(교수와 교사), 금융계(은행 이사급), 사회사업계통, 도서관계통(사서)과 매스컴계통(방송, 신문, 출판계) 예술계(소설가, 미술가, 음악가, 연구계통)와 기업계(전문직 비서, 회사원, 기업경영인)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수는 적으나 여성의 진출이 있어온 분야로 법조계와 정치계를 들 수 있고 새로운 분야로 공과계통의 직종(연구원, 건축기사 등)이 많이 개척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직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미개척분야이며 특히 조직체내의 행정직, 경영직에의 진출은 드물다.

우선 전문직이란 그 자체가 매우 전문화된 직종으로서 일의 성격과 직업상황, 요구되는 대인관계 등이 각 직종에 따라 매우 다르다. 따라서 전문직 여성이 갖는 문제를 한 가지로 일반화시켜 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연구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전문직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

로 갖는 문제와 아울러 특수 상황의 문제점들도 살펴봄으로 여성의 전문직 진출의 전망을 살펴보고 한다. 둘째로, 전문직은 평생직으로서 전문직 여성의 대부분이 가정을 가진 여성들임을 감안하여 가정과 직업의 양립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사회활동이나?" 하는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정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의 연구는 성공적 직업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건을 제시해 주리라 기대된다. 연구주제에 맞추어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은 모두가 기혼 여성들이다.

4-2 접근방식

전문직 여성의 연구로는 이효재, 이동원(1972)의 "대학 출신 여성의 취업구조와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시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취업의식에 관한 질문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있으며, 실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태조사로서 김옥련, 한완상, 김소희(1973)의 "전문직 여성의 직업 및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주경란(1980)의 "한국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 분석", 변화순(1980)의 "여성의 취업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전문직 여성의 실태조사로서 김순옥(1972)의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여자교수들을 대상으로한 신은숙(1981)의 논문이 있다. 이미 있어온 연구와 필자가 행한 본 연구의 차이점은 1) 본 연구에서는 타연구에서 다루어진 표면상에 드러난 사회

제도적인 문제보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문화적인 영역을 들여보고자한 점과, 2) 타연구에서는 질문지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 자신의 의사를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처리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각자의 의사를 각자의 세계관에서 유출된 의미로서 해석해 보려고 한 면에서 현상학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자료는 심층적 인터뷰와 참여관찰, 인생역사 기술(Life-history) 그리고 질문서를 토대로 수집되었다. 일차적으로 심층적 인터뷰는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전문직 여성들이 지닌 문제를 "발견"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15명의 비교적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자리를 굳힌 여성들과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전문직 여성들의 클럽인 BPW 소그룹 모임에서 참여관찰을 함으로써 전문직 여성들간의 상호작용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였다. 이차 단계로서 만 30세 이상 기혼 전문직 여성들의 인생역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인생수기는 전부 65 케이스로서 1981년도 2학기 동안 연세대학교 「가족과 결혼」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필자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인생역사는 신뢰와 친밀감을 포함한 적당한 르포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이 기존관계를 활용하여 깊이 있는 인생역사를 모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한명씩 선택하여 써 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수집된 인생역사 자료가 대표성 있는 집단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적어도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직 여성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질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자 한다.

인생역사 연구를 통하여 여성이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어린 때부터의 연결속에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그들 자신이 자신의 삶 자체를, 그리고 삶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인지하여 왔는지를 중시하였다. 인생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항목은 열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1. 어린시절 - 가정 환경(사회경제적·종교적 환경, 부모의 교육정도)와 가정내 상호작용(자녀중의 서열, 부모의 기대는 어떠하였으며 가족중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가정내의 주 영향력 행사는?)

2. 학창시절 -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 책 또는 다른 근원은?

훈련기간 - 직장인이 되기로 한 동기와 전문직 훈련과정

3. 직장생활의 시작 - 처음 직장을 갖게 된 과정과 직장내에서의 적응문제

4. 결혼기 - 부인이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협력문제, 이상적인 부부관

5. 자녀양육 - "직업인이나 가정이나?"의 선택이 문제 되었던 때는? 직장인으로서 회의를 가졌던 때, 시집·친정·동료들의 협조와 방해, 자녀양육과 가사의 책임수행

6. 자녀가 장성한 후(막내가 어머니 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

을 때부터) - 변화해가는 심정을 상세히 서술

7. 가정의 친구관계 - 자신을 격려해주고 도와준 근거와 소집단, 클럽, 친구관계등에 관하여, 형제자매의 현재의 활동상황

8. 직장내 문제 - 제도상의 차별 (진급관계와 능력개발의 기회) 은근한 차별 (언어, 사회의 선입관 등)

9. 회고 - 현재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심정과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달리했을 결정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면 싶은가? 남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10. 후배여성에게 줄 조언 - 여성이 성공적 직업인이 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써야할 점. (개인의 자질면, 가정적, 사회적 면에서)

세번째 단계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 90명에 의해 응답되었다. 이 질문지는 비교를 목적으로 사무직 여성에게 사용된 것을 사용, 뒷장에서 양 집단의 비교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다.

질문서에서 다루어진 직종으로는 회사원 (20), 은행원 (18), 의사 (14), 교수 (11), 교사 (9), 도서관 사서 (8), 약사 (3), 공과계통 (3) 외, 사회사업가, 간호원, 카운셀러, 기자 각 1인씩이다. 이 집단의 평균 연령은 35.2세이며, 평균 근무 연한은 6~7년이다.

4-3 분석과 토의

심층적 인터뷰와 인생역사, 그리고 질문서를 통해 얻어진 자료

를 기초로 전문직 여성들의 실태를 아래와 같은 네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직장내 문제

2. 가정과의 양립

3. 전문직 여성의 인성적 특성 - 가정 배경, 성격과 철학

4. 여성의 전문직 진출의 전망

<직장내 문제>

여성의 전문직에의 진출현황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류로는 독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야로서 대개 자격증을 가짐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야, 즉 박사(주로 교수), 건축기사, 교사, 법률가, 예술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의사나 건축기사 등은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술가나 교수 역시 자신의 직장활동과 대인관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능력이나 예술적 업적이 중요하지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핸디캡을 심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단지 채용시에 남자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는 점(실력외에 성격과 가정환경 등의 조건이 중시된다)과 경영진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성 자신이 경영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고 (사회화 과정에서 길러지는 오리엔테이션의 차이) 자신의 개인적 업적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또한 또는 가정에서의 책임 때문에 기혼여성이 보직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아직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첫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

를 누리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남녀차별적 문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쉽게 무시하거나 피할 수 있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환자가 여자의사를 불신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리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여교수들은 남교수들과 어울려 과외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고립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그리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금융기관 등 큰 기업체에 소속해 있는 이들로 최고기업경영가로부터 전문직 비서에까지 이른다.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여 독자적으로 혼자서 일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이 중요하므로 먼저 집단보다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취업시에 "남자의 자리를 뺏었다"든가 남성영역의 침해로 이해되는 문화적 풍토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으로는 아직 여성은 조직체내의 "이방인"이므로 남자동료나 상관 또는 부하직원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사무직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들을 겪게된다. 이들은 여성이 성공적으로 직업인이 되기 위해 대인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며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비평을 받지 않도록 대인관계에서 여러가지로 조심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 경영진에 있는 경우 "모성적" 성품을 발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동료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화해를 시키는 역할과 "여자이기 때문에 양보해 주기를 바랄 때 양보해 주는 아량" (43세 의사)을 의미하며 이러한 욕심없는 "모성적" 아량은 여성의 최고직에의 진출을 결과적으로 막고 있다(63세 기업가). 젊은 층의 경우는 선의의 동기에서인지는 모르나 "여자이기 때문에 보아주는" 풍토 때문에

일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점과 전문지식향상을 위한 연수의 기회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때 남자 우선으로 주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큰 단체에서는 대인관계가 직장생활에 매우 중요한 데 여전히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 거리감을 갖고 대하거나 제외시키려는 경향" (43세 사서)이 남아 있으며 "남자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정보를 교환하므로" 제대로 정당한 여성의 실력발휘가 어렵게 된다. 그외에는 고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여성을 독립적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전통때문에 동료여성을 "남편의 위치와 관련시켜본다"든가 어릴때 부모의 직업을 묻듯 결혼후 남편의 직업을 묻고 간혹 그의 체위를 손상시키는 점 또는 "직장여성을 집안여성으로 빗기어 비교하거나 비평함으로써 작업 분위기나 의욕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38세의 간호책임자는 "이제 아이 엄마니까 성적인 면에서 불편함은 안주지만 그래도 농담속에서 자신들의 심리만족만을 위한 말을 함부로 담는다"고, 39세의 한 언론인은 "남자들끼리 음담패설을 할 때 또한 여성이 저신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남성들이 우세한 직장 분위기에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배타적 태도,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습관이 여성의 직장활동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회사나 은행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사소한 곳에서 권위를 찾으려하는 점 또는 여성에 대한 경시하는 말투나 태도, 잘난 체하는 것, 여성의 의견이 옳아도 여성의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문제 발생시 책임전가를 하는 남자상관의 경향, 또는

간접적인 문제이긴 하나 상관에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예, 예"만하는 권위주의적 직장분위기가 직장의 능률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남자들과 교류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업적위주가 아닌 점에 있다. 권력지향적인 직업풍토에서 주로 주요한 일들이 인맥에 의해서(선후배관계, 동향관계, 친척관계) 정보가 교환되며 중요 사항이 결정된다. 전문직에 있어 정보의 입수는 매우 중요한 일의 일부로서 정보를 얻기 힘든 자리로 제외된다면 실상 일을 하기 힘들고 그 이상 조직내 진급을 기대할 수도 없다. 특히 윗거락을 통해서 "남자들의 세계"(술과석이나 골프장)에서 일이 행하여지므로 이러한 면에 참여할 수 없고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식에 있어서 개발 또는 훈련이 안된 여성들은 큰 핸디캡을 안게 된다. 어느 여사장은 남자 부사장을 고용하여 주로 이러한 여성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전반적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여성이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취약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꼭 최고 경영자만이 안은 문제가 아니다. 43세의 약사는 "회사와의 약품 구입시 술과 전자제품 등으로 윗거락하는 것을 보는데 남자들은 마치 남자들의 특권처럼 이런 일을 꺼리낌 없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못하므로 일정한 관리직 이상으로 여성이 진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승진은 상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직내 파벌이 있는 경우는 여성은 대개 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을 보는 수도 간혹 있으나 중심부에 들어갈 기회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여성들간의 유대망(network)이 구성되기에는 여성들이 너무 소수이며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기대되는 역할 때문에 현재로는 서로를 경쟁상대로 경계하는 경향을 보이며 입사동기간의 유대감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경영인 중에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친구의 남편들과 남녀공학을 다닌 경우 남자동창들의 도움을 들고 있다.

종합하면 전문직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녀관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집단으로 보이나 실제 그 압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첫째로, 여성에의 선입관이 여전히 작용하여 능력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점과 여성의 모성적 역할에의 강조는 직장에서도 요구되어 전문직종에의 모성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따라서 화해를 시키는 자, 양보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로, 남녀유별의 전통 때문에 남녀가 직업동료로서의 관계를 맺기가 힘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실제 직장근무의 시간에까지 일이 확장되는 경우 여성은 그런 "무대뺏방"에 참여 못함으로(또한 시키지 않으므로) 주요한 일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실력발휘에 지장이 있다. 또한 남존여비적 태도에 젖은 남성들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향은 크다. 이런 저해요소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일할 때 더욱 심각하다.

<가정과의 양립>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혼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대부분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있음이 인생역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그들 자신도 가정과의 양립문제가 어려움을 인정하나 직장과의 양립에 대한 질문서에서 77.3%가 "해낼 수 있다"는데, 14.8%가 "문제없다"는데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적어도 대부분의 대상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의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으며 양자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가느냐 하는 "어떻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두드러진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 시간 할당
- 2) 가사일의 인계
- 3) 부부간의 이해
- 4) 자녀 양육 문제

시간 할당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아니면 가족과 보내고 있으며 "현재 생활중 어디서 가장 만족을 느끼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직장일과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들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며 직장과의 사교나 취미생활에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생역사에서 직장 여성은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여 생활하여야 함이 필연적임을 강조한 이가 여럿 있었다.

가사일에 있어서 전문직 여성은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으며 육아에 있어서도 대개 남편의 어머니나 자신의 어머니, 그외 가까운 친척(여형제, 동서 등)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개의 경우, 가정과의 양립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한 쪽이 자연히 부족하게 되어 긴장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가정내의 실무를 대신 담당하는 이가 있어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 면에서 전문직 여성은 실제 가사일에는 거의 참여 않으나 가사 관리인으로 가사의 근본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에의 참여는 서로가 기대하고 있지 않는 분야이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가사일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가사보조자를 구하기 힘들게 되면 여성의 전문직 진출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 여성의 또 다른 특징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이 동원 1979, 김 순옥 1972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젊은 층(30~40대)에서는 같은 직장내의 동료와 연애 결혼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준 이로서 주로 남편을 들고 있음을 보아 부부간의 상호이해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해 준다. “남편이 자기일에 관심을 갖도록 직장 문제와 동료 관계를 남편과의 대화의 소재로”(43세 회사원) 삼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직장여성은

간섭이 적으므로 남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족
과도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상당수가 지적하고 있다.

“처음부터 여성도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활용하고 스스로의 생을 가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으며 지금까지 계속 도와 준다”는
경우가 나이층에 관계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전문직 여성의 남
편은 대개가 처음부터 여성이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에 긍
정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에 대한 실망을 배꾸기 위해 대학원을 가고 전공 분야를 살
려 전문인이 된 경우도 보이나 월등히 많은 수가 만족스러운
결혼, 남편의 이해와 사랑때문에 전문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었
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만한 가족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전문직 여성들이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녀 양육의 문제이
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집에만 있는 가
정주부처럼 아이를 곁에서 항상 보살피 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특히 자녀가 어릴 때 마음이 아팠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들고 있
으며, 긍정적인 것으로는 직접 돌보는 시간이 적었다 해도 자녀에게
공부하는 점에서, 또는 생활하는 면에서 저절로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며 사
회 생활을 함으로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
다. 사회의 주요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소외된 가정주부들보다
직장활동을 하고있는 여성들이 자녀들을 사회화시키는 데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 전문직 여성의 가

정에서 남편의 참여가 주목된다. "남편이 아이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잘 돌보아 주어 커다란 어려움을 덜었다." (43세 약사) "남편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부담을 덜고 일할 수 있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할 때에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애기도 잘 본다" (48세 교수)는 식의 새로운 남편상이 남편이 실제 자녀를 보살피고 교육하는데 상당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의 비슷한 직장 여성들간의 교육관계와 모임에서 또한 서로가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받음을 알게 된다. 특히 약사나 의사의 경우 "대학 동창 모임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옛시절을 돌이켜 보는 것 못지 않게 각각의 현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43, 33세 약사, 47세 의사)고 한다.

이상으로 전문직 여성들이 어떻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켜 나가는지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다루어진 표본집단이 어쩌면 양립을 잘 시키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는 양립 문제가 이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또 한편 여성이 아무리 직장에 다닐 의사가 강하여도 주위의 호응(특히 양부모의 도움, 남편의 협조)이 없이는 현재로서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의 편의 해석에 비중을 두며 이 점은 다음 전문직 여성의 인성적 특징을 살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전문직 여성의 인생적 특성>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심층적 인생역사자료에 근거한 전문직 여성의 성격적 특징과 가치관이다. 일반화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다음의 사항들을 "그런 가능성이 큰 사실들"로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불교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종교적 배경이 이들이 어릴 때, 또한 자라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의미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정환경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태어난 여성들이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부모가 모두 상당한 지식수준을 가진 중상층 이상의 화목한 집단에서 태어난 여성이 많으며 그 중에도 딸이 많은 집의 장녀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가 적극적 사회인이 되기를 밀어주었으며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양 부모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음을 들고 있다. 이들의 성격적 특징은 책임감이 강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동기도 "사명감"이라든가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는 농조적 노력이 작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부모의 교육정도 (현대식 교육)가 낮은 농촌지역 출신으로 형제중 막내나 끝에 가까운 딸들의 사회적 진출이 주목되는데 그들은 자신이 형제중 큰 언니나 오빠를 부모처럼 따랐으며 이는 실질상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과 동시에 부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매우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수이긴 하나 도시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가정에 불화가 많았던 집안이나 "가정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집단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린 때부터 성격이 "남달리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였고" "주위 상황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려 노력한 독립적 인간"이었다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번째와 세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위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어린 때부터 기르고 있었던 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전문직 여성은 부모의 지원 속에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길러온 부류와 주위의 지지가 없었고 오히려 주위가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부류로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발전이라는 점을 중시여긴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라고 보아지며 따라서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아 개발을 꾀하는 것과 사회에 헌신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은 적극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소극적으로는 자녀성장후의 허탈감과 소외감의 극복을 이유로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개의 전문직 여성은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보이고 있다. "나는가정생활 보다 힘든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힘든 것을 해 낸다는 긍지를 느낀다" "일을 쉬면 퇴보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든가 "여자는 한가지에만 애착을 갖게 될 경향이 많은데 이 들은 다 잘 조화시켜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또는 "여자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함으로써 남자보다 우월하다 (남자는 가사일을 하지않는

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 가정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기 성취를 해야 하지만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개의 경우 가정의 책임을 담당하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을 해 나가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여성됨에 대하여도 무척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나"는 질문에 대부분이 "상관 없다"고 대답하면서, 한편 단서를 붙이는 이들의 의견이 주목된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이외에도 선천적인 부드러움으로 고집만 세워 밀고 나가는 남성들 보다는 더 일을 진행시킬 수 있어서 여성이 낫지 않을까? 또 자신에게 경제 전문적 능력만 있다면 꼭 결혼을 않더라도 멋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34세 언론계)라든가, "남녀 아무거나 좋으나 웬지 엄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자에게 애착이 간다. 남자로 태어나면 사회에서 조장한 권위주의에 빠져 버릴까봐 꺼려된다"라는 식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한편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반응도 있는데, 이유로서 "여자로써의 제약이 너무 많고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33세 약사)는 불평등한 사회제도적 면을 들고 있다. 전문직 여성들이 전문직을 갖고 싶어하는 후배 여성들에게 줄 조언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해가 있는 반려자를 만날 점과 여성자

신의 결단력 그리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들고 있다. 부부간의 이해 깊은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직장외 시간에 부지런하게 계획성있게 책임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 시간이 적으므로 질적인 면에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48세 사서)면서 자녀와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함을 강조한다. 결단력에 있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아울러 가정과 직장생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직장에 있는 동안은 집의 일을 잊고 몰두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을 엄수하는 것등 자기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다. 원만한 대인관계 역시 많은 이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데, 여자임을 내세워 힘든 일을 피하거나 해서는 안되며, 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범적이고 여성적인 면모를 발휘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모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여 여성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모범적 역할 수행은 여성이 자신의 업무외에 수행하여야 하는 과외 역할로 해석하여 헨디캡으로 보는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제시됨은 주목된다.

<여성의 전문직 진출의 전망>

이제까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은 전통적 역할외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일들은 실제로 어떠한 문제와 보상을 주고 있는지,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는 어떠하며 또 여성이 일생을

통한 자신의 일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였
 고 본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문직 여성들은 상당히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해결해 가고 있음을 보
 게 된다. 부부의 이해가 두터우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시간을
 적게 보내는 대신 더욱 계획성 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해깊은 관계
 를 맺도록 노력하며 또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그외 친척과 가정부의 도움으로 해
 결해 가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고부관계가 좋은 점
 이 주목된다. 개인의 인성적 면을 살펴보면 가정환경에 있어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집안에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란 딸로
 서 자아실현의 문제를 자신의 의무 또는 권리로 받아들여온 여성들
 이거나 어릴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않고 독자적 성품을 길러온 여성
 들이 대다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문직 여성들 대다수가 어떤 면에
 서 전통적인 가부장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성장과정을 거쳐 왔음을 의미한다.
 현전문직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점은 의미깊은 점인데 이를 두가지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전문직 여성들은 예상되는
 차별을 덜 받고 있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 아직도 전문직에 종사하
 는 여성들은 예외적인 인간들로 특수한 집단을 이룬다는 해석이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더욱 현실성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여
 기서 필요한 자료는 전문직에 진출하고자 원했으나 중간에 좌절된,

또는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좌절된 여성이 얼마나 될까?라는데 관한 숫자이다. 이 숫자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나 적어도 최근의 한 연구(이 동원, 1981)에 따르면 대졸 여성의 9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46.5%가 결혼과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현대에 있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본 연구에서 본 집단처럼 어느면에서 선택된 그룹에 속하든 많은 간에 거의 대부분은 전문직 여성이 되고자 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바람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공적 전문인들의 바람만큼 강렬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단지 전통적 여성의 삶에 대한 거부적 표현일뿐 자신이 장애를 들고 직업인으로서 능력발휘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있다. 당사자들이 직장진출에의 사회문화적 장애가 심하다고 느낄수록(그들의 느낌은 실제로 장애가 심한 정도와도 물론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들의 바람은 바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전망하는 바로는 아직 얼마간은 여성의 전문직 진출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조사에서 밝혀진 바처럼 전문직 여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다. 첫째로, 당사자의 독립심, 강한 책임감, 자존심 등 성격적 특징이 주목되며 이는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고등교육을 받은 부모, 특수한 종교적 분위기, 형제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저항을 갖은 환경 등)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을 미루어 여성이 대학졸업할 즈음에 단순히 굳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사회화 과정의 문제로서 현재 전문직을 갖는다는 것은 전통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여성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두번째로, 기혼 여성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을 맞을 경우 대개는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조사에서 직업과 가사를 성공적으로 양립시켜가는 경우들을 대부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결코 양립이 쉬운 때문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편과 부모와 아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조건이었음을 많은 여성들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실현해 보려면 그만큼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장 이외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33세 약사)라는 말에서도 엿보이듯이 여성의 1인 2역 내지 3역이 여기서 전제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일을 가정에까지 끌어들이 식구들에게 불편을 준다는가 자신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여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내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능률에 지장이 있어도 안될 것이다”(48세 교수) 등의 의견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여성관이 진보적인 남편과 시부모를 만나는 것이 Critical한 문제이며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성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통적인 여성의 모성적 의무감으로 가정 식구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눈치를 보아 처신해야(어찌면 필요이상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한 사

정은 아닌 것이나 직업여성이 이중역할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과 관리가 다른 밑을 수 있는 이에 의해 수행된다해도 여성이 해야 할 책임으로 항상 식구들의 이해를 받도록 확인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있고 여기서 시간분배의 효율성문제, 여가와 휴가의 단축문제와 그래도 전문직 여성들이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듯이 느끼는 자녀의 문제가 대두된다. 대부분 여성들은 다른 가정주부들처럼 어릴 때 아이들과 놀상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성 자신들이 많은 의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얼마나 여성 자신과 자녀들에게 소화된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해볼 과제이다.

세번째 조건으로 남편의 부인의 직장활동에 대한 인정 또는 이해를 넘어선 실제적 도움이 있다. 남편의 도움은 특히 자녀양육상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면에서 남편의 도움은 앞서 언급된 부인의 자녀에 대한 죄의식의 문제를 크게 해결하여 준다하겠다. 자녀를 기르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이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우를 상당히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대개의 경우 젊은층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보아진다. 40대 이후의 층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경제 활동이 남편의 자존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처신하여야 함을 강조한 여성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현재까지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두사람 몫을 큰 문제없이 해 내온 것이 전문직여성의 대표적 경우였다면, 앞으로는 남편이 가정의 일을 나누어 가짐으로 (role-sharing) 전문직 여성의 진출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력

가족화추세와 더불어 전문화와 평등주의가 가져온 가정에 대한 철학의 변화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으로, 또한 개인가정에서 부부역할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점을 예기시킨다.

<전문직 여성과 사무직 여성의 비교>

이 절에서는 전문직 여성집단과 중간직 여성집단을 질문서를 토대로 그들이 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조명하여 보고 동시에 화이트 칼라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공유한 문제들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의식상의 문제에 있어 질문서에 나타난 바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 두 집단은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훈련과정 그리고 그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평가에 있어 큰 차이가 나며 직업에 임하는 태도(*professional dedication*의 정도)나 실제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계속하느냐의 여부에 있어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데, 질문서 분류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은 흥미롭다. 연구자들은 질문지에 응답하는 자세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는데 즉 이들의 응답이 실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실행할 실천가치적 의견이라기보다 당위적인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들어온 것, 그러는 것이 좋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해 표방가치적인 것을 질문서에서 나타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으로서 그 가능성을 분석상에 있어 어느 정도 계산에 넣고자 한다.

우선 전문직의 경우와 중간직의 경우 공통으로 나타난 질문서상

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질문 2. "어떻게 입사를 하셨습니까?"의 질문에 「공개채용」이 전문직의 경우 33% 중간직의 경우 34%이며, 「학교를 통한 채용」이 각각 30%와 38%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2. 질문 3. "취직당시에 현재 직장을 얻는 대신 다른 것을 했다면?"의 질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이 사무직이 53% 전문직이 52%이며 「진학」이 각각 37%와 17%으로 유사한 응답을 보이며, 사무직의 경우 연령이 낮은 층이므로 더 많은 율이 진학가능성을 든 것으로 보인다.

3. 질문 5. "직장을 얻는데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 있어 「적극적 찬성」이 사무직의 경우 59%, 전문직의 경우 60%이며 「소극적 찬성」이 각각 38%와 35%로 부모가 여성의 취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보인다.

4. 질문 8.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해낼수 있다」가 사무직의 경우 75%, 전문직의 경우 77%로서 대다수가 가정과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응답에 있어 전문직여성보다 사무직 여성들이 8%대 1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대다수가 실제로 직장과 가정일을 양립을 시키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5. 질문 10. "여자상관 밑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의 항

목에서도 대다수가 「상관없다」고 답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가 71%, 전문직이 85%이며, 약간 더 많은 수의 사무직 여성들이 「더 좋다」(13%)와 「싫다」(16%)로 응답하였다.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특히 상관의 성(性)에 상관을 앎을 알게된다.

6. 질문 9. 직장에서 여자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사무직, 전문직의 경우 모두 「여성자신의 애착결여」와 「여성의 가사책임에 따른 이중역할」을 심각한 사유로 꼽고 있으며, 세번째로 전문직의 경우는 「일반적 직장난」을, 사무직은 「근무기간이 짧다」를 들고 있다. 후자의 차이점을 전문직과 사무직의 일의 성격의 차이에 따른 평생직여부의 문제가 관련이 된다. 「능력부족」의 항에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7. 질문 11. 「만약 여자상관 밑에서 일한다면 어떠한 점에서 남자상관을 모실 때와 틀리다고 생각되십니까?」의 항목에 대해 양 집단 모두 「사사로운데 신경을 쓴다」와 「부하직원 요구에 더 예민하다」를 첫째와 둘째 중요사항으로 꼽고 있다. 세번째로 전문직 여성은 「별차없다」를, 사무직 여성은 「결단력이 부족하다」를 들고 있다. 양 집단 모두 여성의 성격적 특질로 인간관계와 작은 것에 신경을 쓰는 점을 들며 이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함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세번째 선택을 볼 때 전문직 여성들이 남녀의 차이에 신경을 덜 쓰고 있음을 알게된다.

“현실적이다” “관용스럽다” “남들보기에 안 좋다”에는 두 집단 모두 찬성하지 않고 있다.

8. 질문 12. “여자직원은 남자동료에 비하여 어떠한 특징이 두드러집니까?”에 대한 항목에서 두 집단 모두 “눈치가 빠르다”와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쓴다”를 들고 있다. 이는 앞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세 번째 선택에 있어서 전문직 여성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문제해결을 한다”는 장점을 지적하는 반면 사무직 여성은 “일에 의욕이 적다”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꼽고 있다. (“일에 의욕이 적다”는 항목에 전문직 여성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이 역시 사무직 여성에 비해 전문직 여성들이 직업에 대해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9. 질문 14-3, 4. “부인의 직장생활이 남편의 출세에 지장이 있다”와 “결혼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항목에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통적 사고방식의 변화가 뚜렷하다.

10. 질문 II-1. 직장을 갖게 된 동기에서 사무직 여성의 경우는 「사회경험을 위하여」가 전문직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 활용」을

첫째로 꼽고 있으나 두째로는 각 항이 바뀐 순서가 된다. 전문직의 경우가 능력활용에 더 치중함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통기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다.

11. 질문Ⅱ-3. "직장에서 남자동료들을 대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무직 여성의 경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를, 전문직의 경우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를 들고 있다. 두번째 선택으로서는 각 항이 뒤바뀐 형태이다. 여기서는 미혼과 기혼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나 근본적으로 남성동료를 대할 때는 앞의 두 점을 유의해야함에 동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집단의 사고방식에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전문직 여성들이 직업에 대해 약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임을 보게 되는데 이점은 다음의 질문지상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분석해 볼 때 더 분명해진다.

1. 질문 6. "자신이 하는 일의 직장에서의 중요도"에 있어서 전문직 여성은 68%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무직의 경우 47%가 그렇게 답하고 있음에서 차이가 난다. 자신이 직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은 더 많은 전문직 여성들이 느끼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2. 질문 14-1.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에 사무직의 63%와 전문직의 46%가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직 여성의 나이와 결혼여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질문 14-2. "남편의 성공이 곧 여자의 성공이다"는 항목에 사무직 72%, 전문직 57%가 찬성을 나타냄으로 사무직 여성이 나이가 어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의 57%가 찬성을 보인 점은 역시 주목되어야 할 점으로 아직 많은 수의 여성들이 독자적 성취를 통한 자아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4. 질문 II-2. "직장내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사무직 여성은 첫째로 「봉사정신」을, 두번째로 여성적 부드러움을, 「능률적 업무수행」을 세번째로 꼽는데 비해 전문직여성들은 「능률적 업무수행」을 첫째로 「봉사정신」을 세번째로 꼽고 있어서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는 일을 해 내는 능력이 좀 더 강조됨을 알 수 있다.

5. 질문 II-4. "직장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사무직 여성은 「사회경험」 「대인관계 및 사교」 「자기발전」의 순을 들고 있는데 전문직여성들은 「자기발전」 「사회경험」 「대인관계」를 꼽고 있어서 역시 전문직 여성의 일에 있어서의 자아실현의 측면을 엿보게 한다. 양 집단 모두 경제적 이유는 중요치 않다고 답하고 있다.

6. 질문Ⅱ-5. "현재 다음 생활중 어디서 가장 만족을 느끼시는지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에 있어서 사무직 여성은 「친구와의 교류」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직장일」의 순으로 중요성을 주었으나,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직장일」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친구와의 교류」의 순으로 꼽고 있다. 전문직 여성에게는 직장일과 가정이 거의 전부로서 친구관계는 거의 중요함을 갖지 못 하며, 사무직의 경우는 직업일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반면 대인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함을 보게 된다.

이상과 같이 질문지 상에 나타난 결과는 직장일에 대한 태도가 다름으로 전문직 여성과 사무직 여성의 전반적 생활태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보았다.

여기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는 제도적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차별이 크게 제거된 경우에도 화이트 칼라직 여성들이 여전히 안고 있을 문제점들이었다. 이들을 요약해보면 우선 직장내에서의 문제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가정내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전히 있음을 들 수 있다. 사무직 여성의 경우 직업상의 작업수행보다 또는 작업수행 이외에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던 서어비스(보조)나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애교, 분위기를 맞추는 역할(이들은 사실 서구에서 수입된 여성상과 결부된 것이다)을,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양보하는" 모성적 자질이 요구되고 있어서 실제로 여성들이 직업인으로서 커 나

가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에의 기대뿐 아니라 남존여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양상으로 직장내에서의 여성을 비하시키는 행동이 두번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자신의 심리만족만을 위한 반말과 농담 등의 언어 행동에서부터 성적인 희롱에 이르기까지 숫적으로나 관념적 전통의 면에서나 약자인 여성은 강자의 고의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고있다.

특히 직장을 결혼전에 잠깐 지나가는 간이역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경제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안고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세번째로 조직경영에 있어 여전히 인맥위주, 권위위주의 방식이 작용함으로써 인맥이 약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여성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조직의 중심부에서 탈락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뒷거래에 의한 일처리가 성행하는 한 여성들의 진출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여성의 직장내 업무방식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고 여성들이 인정함은 주목되는 데 장점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한다」 「부하직원의 요구에 더 예민하다」를 들고 있으며 단점으로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쓴다」와 「일에 의욕이 적다」를 들고 있다. 이점은 더욱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네번째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여전히 가정의 궁극적 책임은 여성이 쥐게 되므로 책임이 과중하다. 전문직 여성들은 대개 과중한 책임의 성공적 수행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직장일과 가사일과 "그래도 남은 뒷치닥거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성은 이중 역할에 시달리며 결국 경제·사회활동에의 진출은 특수한 조건을 갖춘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여성들의 큰 공헌을 기대하기 어렵다.

5. 도시저변의 근로여성

5-1 문제의 제기: 빈곤·여성·일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저변 근로여성은 소득계층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소득층에 속하고, 도시경제구조에서는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에 주로 취업을 하는 여성집단을 말한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직종상으로는 서비스·판매·생산직 등에 속하지만, 정규적인 임금을 받는 직장의 소속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저임금·저소득 경제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 소득활동은 도시의 빈곤과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도시 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부분 빈곤층 지역사회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혹은 경제학·사회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그들의 경제활동, 고용구조, 아동교육 등에 관한 연구도 보이고 근로여성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조형, 1981 참고문헌 참조)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구조와 사회계층구조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이들 도시저변 근로여성의 소득활동과 주변생활상을 통하여 빈곤과 여성과 그들의 일 및 가족생활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주대상으로 삼은 근로여성은 기혼여성이다. 저소득·저학력층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주로 공식부문에 취업하는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미혼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저소득·저학력의 미혼여성들이 당면하

는 취업의 경제적 필요성은 같은 계층의 기혼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경제활동은 공식부문 밖의 활동이어서 미혼여성의 집중직종과 대비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역할은 가족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하며, 또한 빈곤층에서 가족원 개인의 노동과 소득을 가족 및 가계와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저소득(빈곤)이라는 경제적 요소와 가족 및 여성의 일을 도시저변 근로여성의 생활에 통합된 요소들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가족의 빈곤과 문화의 요소가 도시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둘째로, 도시저변 근로여성들의 취업조건, 근로조건 등은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 주는가? 셋째로, 빈곤생활과 여성의 취업활동이 여성자신들, 가족원 그리고 이웃·친척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5-2. 자 료

본 논문에 주로 이용된 자료는 1982년 6,7월에 걸쳐 서울시내 봉천5동과 신림7동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면접과 인류학적 관찰·면접을 겸용하였는데, 질문지면접은 양 지역에서 17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인류학적 자료수집은 2개월동안 봉천5동에 거주하면서 이루어졌다.

질문지의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 및 가구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가족 및 이웃관계, 그리고 사회·정치적 태도 등이 포함되었다.(부록3) 인류학적 자료는 55 가구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가족 및 이웃관계에 관한 것을 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과거의 1회 설문지조사에 의거한 연구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낮은 신빙도의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대상자의 행위 및 태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설문지에서도 개방형 질문을 포함시키고, 조사원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질문이외의 면접도 병행하였다. 또한 인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상주시켜 수집한 자료는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용하되, 관찰 및 면접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를 포착한 자료에 의거하여 분석·서술하는 후자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5-3 사 례

도시 저속득층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투쟁해온 인생경력을 지니고 있다. 40대 이상이면 국민학교에 다녀 보지도 못했거나 중퇴이고, 30대 이하는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 다닌 사람이 많아진다. 빈곤하더라도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 결혼은 반드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편이 가계를 꾸려갈만한 소득활동을 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 남편이 일찍 사망하거나 경제능력이 약하면 가계유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인에게 돌아간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중상층 여성들과는 달리 항상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과 필요를 느끼며, 사실상 그들 중에는 일생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우선 몇 사람의 일생기를 주로 그들의 일과 관련하여 소개한다.

A 부인 (32 세)

국민학교 졸업 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돌보다 19살쯤 혼자 상경했다. 상경한 후, 가정부, 공장직공을 하여 저축을 조금 했는데 천정오빠가 폐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로 다 주어버렸다. 그후 다시 시골로 내려가보니 집안형편은 여전히 나쁘고, 돈을 벌 일도 마땅치 않아 다시 상경했다.

이번에는 좀 용기가 나서 혼자 영등포시장에서 리어카행상을 했다. 군고구마장사, 노점, 까치담배장사 등 닥치는 대로 다했다.

천정 때문에 결혼생각도 못하다가 주위의 권유로 28세 때 현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현재 34세로 중학졸업이다. 시

골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다가 군대갔다 온 후 상경했다. 그전에도 목수일을 잠깐 했었는데, 상경후 본격적으로 목수생활을 하였다. 30세에 현부인과 결혼한 후 용산에서 삭월셋방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온 결과 저축이 생겼고 모자라는 부분은 빚을 얻어 2년 전에 현재의 집을 구입하였다. 현재는 두 번 째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있는 중이다.

부인은 남편이 번 돈을 모아두기 위해서 부업을 찾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다방주방에 취직했었으나 커피 등을 잘 끓이지 못하여 하루만에 파면되기도 했었다. 지금은 집에서 야구공 만드는 부업을 하나 그것은 열심히 해보았자 한달 수입이 2~3만원밖에 되지 않아 아이들 군것질값밖에 안된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으니 집밖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

A부인의 집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방들이 손바닥만한 마당을 중심으로 붙어 있다. 현재 식구는 시어머니, A부인, 자녀 두 명이 있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방을 두 개 썼으나, 현재는 방 한개만 쓰고, 나머지 한 방은 세를 두고 있다.

이 부부는 B동의 전형적인 부부지만 비교적 성공한 측에 속한다.

A부인의 집에 세들어서 사는 노부부는 부인이 50세이고 남편이 63세인데 젊어서 돈을 벌지 못하였다. 부인은 친한 사람과 줄이 달으면 팔래나 파출부일을 하고, 간혹 영세민취로사업에 나가기도 하며, 남편은 용산시장에 나가 잔심부름을 하여 약간의 용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다가도 몸이 아프면 쉬고 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다. 같은 동네에서 이집 저집 셋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B부인 (36 세)

B부인은 의정부출신으로 뒤늦게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이었던 15세 때에 중퇴하였다. 그 후 집에서 농사를 거두고 있다가 21세 때 편물을 배워 25세까지 의정부 근처에서 일하였다. 26세때 중매로 결혼하고 1년 후 여자애를 낳았다. 남편은 시골에서 땅을 다 팔아, 사업 등에 실패하여, 돈을 벌려고 1972년에 상경하였다. 처음에는 B동의 '하꼬방' 삭월세 방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서 1년간 부인은 편물을 하고 남편은 장사를 했으나 둘 다 수입이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후 9년 동안 행상, 노동, 식당, 주방일 등 안해본 일이 없다. 노동판에서는 여자가 끼지 않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막 노동의 경우는 숙련공의 경우이든 여자는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1,500 ~ 2,000 원 정도 임금의 차가 때문이다. 작년 12월까지 용산시장에서 리아커에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장사를 했다(과일, 방망이...). 그런데 행상은 불법행위라서 두번 걸려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 적도 있다.

그 후 두 번쯤 식당의 주방일을 했으나 곧 그만두었고, 지금은 놀고 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집에서 스웨터 뜨는 일은 단가가 너무 싸서 하루에 천원벌이밖에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찾고 있다.

현재 남편은 매일 노동일을 나가고 있다. 그동안 몸이 아파 병원에 세번 입원하여 아직도 그때의 빛이 남아있다. 이웃집에서 얻은 빛도 못갠아 케어먹은 셈이 되었다.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 부인 (42 세)

서울로 온 지 12년이 되었다. 맨처음 B동에서 삭월세로 시작하여 전세로 몰아다니다가 지금은 무허가이기는하나 자기집을 지니고 있다.

전라도 강진이 고향으로 학교는 다니보지도 못했다. 19세 때 해남으로 시집을 갔다. 해남은 주로 밭농사(주로 조농사)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돈벌고 애들도 공부시키려고 30세 때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여의도의 아파트공사장에서 1년 가량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약간을 저축하여 소금·사과·생선·새우젓·고물 등, 행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일거리가 있으면 막노동도 했다. 돈버는 데에 재미가 붙어서 살림하다가도 물건을 받아와 행상을 하곤 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저축을 하여 집을 살 수 있었다. 남편은 그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행상을 했다. 지금은 서울에서 한약을 받아다가 지방으로 가서 파는 장사를 한다. 두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온다.

자녀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은 많이 시키고 싶다. ○부인은 아들만 5형제를 두었다. 맏아들은 22살로 대학입학을 위해 재수를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야간공고를 다니고, 그 아래로 중3, 중1, 국민학교 4년생이 있다. 자연히 교육비가 많이 들므로 생활이 매우 어렵다.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다른 부분은 극도의 절약을 하고 있어 식단은 밥과 김치뿐이다.

처음 서울에 와서는 장사의 대부분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행상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으나, 요즘은 물건을 차에 싣고 싸게 팔 뿐 아니라 물건도 흔하므로 아줌마들이 하는 행상으로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 행상으로 너무 오랫동안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녀서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목뼈와 머리가 아프다. 최근에는 집에서 부업을 한다. 주로 근처의 요꼬공장에서 가져다 하는 뜨개질을 하는데 4개 1조에 200원을 받는다. 돈을 버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고 싶으나 본전치기밖에 못하는 장사는 흥미없다.

D부인 (45세)

10년 전 남원에서 서울 B동으로 상경했다. 남원에서 남편은 연탄 찍는 기술자였는데 그 공장의 주인이 죽고 젊은 아들이 공장을 맡게된 후,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서울로 왔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시집식구들이 먼저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곳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다. 시집형제들도 모두 근처에서 살고 있다.

서울로 온 후 남편은 서교동 근처에서 연탄공장일을 했지만 수입도 시원치 않았고, 이미 건강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매일 술만 마시므로 더욱 쇠약해졌다. 막노동이나 장사를 닦치는대로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래서 매일 술먹고, 아프고, 사기당하기가 일수였다. 집까지 빛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동네가 창피할 정도였다. 3년 전 노동일로 척추를 다쳐 누워있다가 사망했다. 그 후에는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어

려움이 있으나, 남편 있을 때 고생이 많았던 D부인에게는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다.

D부인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서툴고, 물정도 몰랐고, 서울이 무섭기만 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원에서 국민학교를 졸업시켜 데려온 딸까지 상급학교에도 못보냈다. 이웃보다도 친척들 간의 관계가 많아서 시댁식구들과 왕래도 많고 유대도 강하다. 그러나 모두 가난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은 없다.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장사수완은 늘었다.

남편이 전혀 돈을 못벌었기 때문에 D부인은 혼자서 생계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로 행상을 했는데, 야채·소금·생선행상을 이웃을 따라 해보았는데 그 중 생선행상을 가장 오랫동안 했다. 근 7년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4~5,000원 벌이로 한 달에 12~13만원이 된다. 하루에 2만원정도 들여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다. 겨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하루 7천원도 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자녀가 많아(3남 1녀)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다. 만약 몸이 아파서 하루 장사를 못나가면, 당장 다음날 아이들 쓸 차비가 없다.

딸은 영동의 양장점에 조수로 월 12~13만원을 받다가 최근에 동네공장으로 옮겼다. 월급이 15만원으로 올랐고, 점심을 제공하고 교통비가 절약되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훨씬 나아졌다. 그 전의 양장점은 야간수당도 없고, 특별지급이나 점심도 주지 않아 좋

지 않았다. 딸의 월급은 저축을 하다가 아들 등록금(고 1, 중 2)으로 써버려서, 딸뭍으로 저축한 것은 하나도 없다. 딸이 동생들을 공부시키는 셈이 된다.

이제 45세가 넘어가니까 자녀의 장래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도 없고 두려워진다. 혼자 사는 것도 피곤하다. 애가 이렇게 많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도 없을 것이다. 다리에 힘이 없어 행상도 힘이 드나 가게터를 잡을 돈도 없고, 알선해 줄만한 사람도 없다.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다. 옆집이나 웃집 사람들이 교통사고다, 병이다, 공사장 사고다 하면서 너무 쉽게 죽는다. 자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좀 호사해보는 여자로 살고 싶다.

5-4 가족의 경제생활과 여성의 인

도시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은 「저소득-과다지출-빚」의 빈곤한 삶의 악순환과, 최저생활을 유지 내지 개선해보려는 절박, 소득증대의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그러한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는 조사대상가구의 소득·지출·저축과 빚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가계현황과 가구원의 소득활동참여에 관한 일반적 상황을 살펴본다.

조사대상 가족들은 월평균 2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다양한 소득 수준을 보였는데, 50만원이상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가 보통이었다. 질문지조사 대상이 된 177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63,500원 정도가 되고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은 52,800원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을 1980년도 전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해 보면, 가구당 평균소득은 1980년도 고정가격으로 201,800원으로 환산되어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267,100원보다 6만원 이상이 낮은 수준이된다.* 가구당 평균 인원은 4.99명으로 전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4.54명 보다 많기 때문에 가구원 1인당

	도시근로자가구 (1980)*	저소득층가구 (1982)**
가구당소득	267,100	201,800
가구당지출	216,600	151,200
1인당소득	58,800	40,400
1인당지출	47,700	30,300

*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1981, pp.268-69.

**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의거하여 1980년도 고정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임.

월평균 소득은 40,400 원으로 근로자가구보다 18,400 원이나 낮은 셈이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에서 또 한가지의 특징은 매월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 점이다. 정규적 임금소득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자영업자이거나 임시고용원 혹은 노동자이므로 소득은 부정기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가계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가구당 월지출액은 자녀교육비를 제외하고도 보통 10만원 이상이 된다. 대개 월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가계운영이 어렵고 가계부를 적는 가구는 하나도 없지만,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생활비는 매월 일정액이 소요된다.

<표1>은 가구원 1인당 월소득액과 지출액에 따른 177가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저소득층 지역의 소득액의 차이에 비하여 지출액에는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가구원 1인당 월소득 및 지출별 가구분포

액 수 (천원)	소 득	지 출
10 미 만	3	0
10 - 20	6	10
20 - 50	72	117
50 - 100	64	41
100 - 150	10	0
150 이 상	2	0
미 상	20	9
계	177	177
성 균	52.8	39.3

생활비는 가정마다 최소한으로 줄여 지출한다. 사용하는 방이나 광열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단도 거의 매일 밥과 김치로 하며, 절약은 생활비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식비를 절약하는 행위와 아이들 군것질거리를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와는 일견 모순이 보인다. 자녀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용을 베푼다. 동네 구멍가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동네 꼬마들로 항상 붐빈다.

평균치로 계산하면 1인당 소득액이 지출액보다 만원이상 웃돌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가계를 운영한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남은 돈 전부”, “생기는대로” 저축을 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를 들어 용돈을 마련하는 가정들이어서 저축이 있는 가구는 전체 177 가구중 70 가구가 되지만, 반대로 빚이 있는 가구도 81 가구나 된다. <표 2>

<표 2> 저축 및 부채상황별 가구분포

	저	축	부	채
없 다	107		96	
있 다	70		81	
10만원 미만	23		4	
10 - 20만원	8		7	
20 - 30 "	6		10	
30 - 50 "	3		6	
50 - 100 "	10		11	
100 - 200 "	11		32	
200 이 상	9		11	
계	177		177	

저축과 부채의 액수에서도 부채액이 저축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실패, 가족의 병치료, 자녀교육이 빚을 지게 되는 주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그들 생활의 빈곤성과, 교육·의료 문제¹에서 사회적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돈은 이곳이나 천척으로부터 빌려쓰는데 월최고 8%까지 예외없이 고율의 이자가 붙는다. 그것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빌려쓰는 경우에도 신용이 담보가 되므로 동네에서 신용을 쌓고 인심을 얻어 두는 것은 항상 그들 생활의 원칙이 된다.

그들의 불안정한 경제생활은 이사가 잦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조사지역에서 장기거주자는 무허가주택이라도 집을 소유한 주인들이고, 세를 들어 사는 가구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옮겨다닌다. 저소득층 지역의 가옥은 8 - 12명 대지 위에 조그만 마당이나 대문을 중심으로 3 - 4개의 방이 붙어 있고, 대부분 방 한개에 한 가구가 살고 있다. 이 때 주인집 외에는 모두 전세나 삭월세로 사는 사람들이다. 방들은 작지만 자녀 2 - 3명과 함께 한 방을 쓰는 경우가 보통이고, 시어머니나 다른 친척까지도 방을 함께 쓰는 경우까지 있다.

이사를 다니는 이유는 다양한데, 수입이 늘어서 더 나은 방을 찾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위해 혹은 병치료를 위해 전셋돈을 써서 이용하고 더 값싼 방을 찾는 경우도 있다. 이 지역을 떠나 외지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근방의 무허가 주택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10년 이상을 근처에서 셋방을 옮겨 사는 가족도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도시의 일반근로자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소득활동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소득자의 수는 1.49명인데, 1980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은 1.31명이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177가구중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8가구나 되고 1인 취업가구가 92가구, 2인 취업가구가 62가구, 3인 이상 취업가구가 15가구였다.

저소득층 가족의 빈한한 경제생활이 노동가능한 가족원을 소득활동에 참여케 한다. 건강한 남자는 물론, 부인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 20대 자녀들도 일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

<표3>은 177가구의 15세이상 가구원 560명 중에서 설문조사중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고된 263명의 직종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3> 15세 이상 조사대상 가구원의 직종 및 성별분포

직업	남자	여자	계
사무직	9	3	12
판매직	30	16	46
(노점·행상)	15	12	27)
서비스직	35	6	41
생산·운수직	100	52	152
(공원)	37	17	54)
(가내수공업)	0	28	28)
(건설노동)	50	6	56)
기타	12	0	12
계	186	77	263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 종사자가 한명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직 종사자도 여자의 경우에는 20대 미혼여성 3명이 포함될 뿐이다. 저소득층의 남녀가 집중취업을 하는 분야는 공장과 집에서 생산제조활동을 하는 생산직과, 건설노동, 노점·행상을 주축으로 하는 판매직, 각종 개인 서비스직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업”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가내수공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주로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집에서 하는 일이다. 부인들은 갓난 어린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직업에 관계없이 부업일이라도 찾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당시에 보고된 28명의 가내수공업 종사자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다수의 가정주부(설문지조사에서는 117명이 “가사”에 종사한다고 보고되었다)들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인들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으면 밖에 나가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만, 자녀중에 스스로 식사를 찾아 할 수 있는 연령에 다다른 아이가 있거나, 아이들을 돌봐줄 시어머니라도 있는 경우에는 밖에 나가 일을 찾는 사람이 많다.

더우기 남편이 사망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부인들이 사실상의 가구주로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이런 부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은 노점·행상등의 상업과 파출부, 청소부 등 개인 서비스이며, 최근에는 건설노동까지 늘어나고 있다.

남자들의 노동이 대부분 심한 육체노동이고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없는 저축에 빚까지 지

게 되고, 자연히 생계는 여자의 책임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경제적 빈곤, 소득의 불규칙과 함께 남편의 불안정한 직업·높은 사고율은 여성들로 하여금 한 톨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관념을 심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서의 그들의 경제적 역할은 남편이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산층 부인들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가족원에게 매일 의식주를 제공하고 가계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결국은 살림을 직접 맡아하는 부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발농사를 가사의 일부로 계속해온 농촌 여성들의 경우와 비유해 볼 수 있다. 도시 저소득층 여성은 평균농가의 부인보다 소득의 불안정성·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책임에 대한 중압이 더욱 커지고 실제로 생계유지의 주된 역할을 하는 여성이 많아진다.

앞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들의 인생은 가난과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고, 가족의 가난한 삶을 자신의 노동으로 유지 내지 향상시켜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유있는 자본도 없고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즉 주요 시장능력이 결여된 상태의 그들은 같은 계층의 남성이나 미혼여성들보다도 더욱 그 취업에서 영역의 제한과 임금의 제약을 받는다. 그들이 하는 노동은 거의가 비공식 부문의 주변적 노동이다. 또한 일생기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가지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드물다.

“어차피 못 벌기는 한가지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바꾸어 가면서 해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파로에 의한 소득증대와 비교적 쉬운 노동에 대한 저임금의 양자택일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5-5 도시 비공식부문의 일

이 절에는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집중취업하는 영세상업, 가내수공업, 개인서비스업, 건설노동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해 본다.

가) 영세상업

상점 경영(“장사”, “사업”, “가게” 등으로 표현됨)은 저소득층 남녀가 가장 많이 원하는 인기있는 직종이다. 현재 영세규모의 각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다른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자금을 모아서 가게를 장만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않는 자유업으로 안정된 가게를 꾸려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말같이 쉽지는 않다. 우선 착수자금만도 그들 대부분의 현실적인 능력을 훨씬 잇도는 액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동네에서 소규모의 식품점이나 잡화상을 경영하려면 적어도 4 - 500만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상점을 경영하는 가정은 동네에서 예외적으로 경제생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 외상거래등을 통하여 이웃간에 유지력이 된다.

저소득층 여성이 종사하는 상업의 종류나 규모는 상점과는 다르다. 자본이 없이 동네 물건집에서 신용으로 물건을 메어다 행상을 하거나 2만원 안팎의 자본으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행상·노점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급하는 물품도 야채, 과일, 생선, 잡화물 중 한두가지 정도가 고작이다. 이웃간 혹은 거래선간의 안면과 신용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본이 없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일반 노점·행상을 하더라도 하루 2만원정도로 시작이 가능하다.

행상의 경우는 노동하는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서 집안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행상도 하루 10~12시간 일을 매일 나가야 하고, 더우기 노점상은 상인들간에 묵시적으로 상호 지정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벽 4~5시에 물건을 받으러 나가서 밤 8~9시까지 영업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동네 상점의 부인들도 상점과 살림집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가게일을 보게 된다. 특히 남편이 다른 일로 외출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실제 경영자가 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은 무보수 가족종사자에 불과하다.

노점·행상의 수입은 자본액수와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세규모의 상업은 하루 3~5천원 이익이 고작이다. 그렇지만 한 달이면 10~15만원의 수입이 되고, 한 가정의 주된 소득자로서 혹은 보조소득자로서 커다란 몫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잦고, 더우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전치기'도 못하는 경우에는 그만 둘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영세상업은 자유업이지만 노점·행상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 상행위로 법의 제재를 받기도하고,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제조업이나 유통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면, 큰 공장에서 생산되는 불합격 물품을 손질하여 유통하는 상인과, 소규모 공장에서 물품을 받아서 상업을 하던 상인층은 중·대규모 공장의 품질관리 강화, 혹은 생산품목의 변경 등이 있을 때 그들의 생업에 타격을 받는

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나 저소득층 상인이 노점을 하는 근처에 대규모 유통회사의 슈퍼 체인이 들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게 된다. 다양한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슈퍼마켓에 손님을 뺏기는 것은 물론, 무허가 노점은 철거압력까지도 받게 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슈퍼마켓이 들어설 경우에 저소득층 동네의 상점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주로 외상거래로 손님을 확보하는 상점에는 계속 손님이 있게 마련이어서 영세노점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느정도 자본력을 가진 상점이 훨씬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영세상인을 위협하는 또다른 유형의 상행위가 최근에 성행하고 있어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대규모 상사가 아닌 소자본가에 의한 트럭덱핑업이 바로 그것이다. 상인이 트럭을 임대하거나 트럭 소유주와 동업으로 채소·과일·생선 등을 다량으로 전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하여 도시의 중류 혹은 하류주거지역에서 환영을 받지만, 이들의 출현은 영세상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 가내수공업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종사하는 가내수공업의 형태에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공장생산 이전단계의 소규모 제조업·수선업의 형태인데, 사용하는 기술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지만 흔히 '공장'

이라고 불리우는 독립된 생산단위를 이룬다. 의복의 제작 및 수선, 전자제품 수선, 양철이나 기타 고물을 이용한 제품생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주인과 가족원의 노동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과 지대(地賃)를 이용하기 위해 소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흔히 발전되는 것으로는 집안에 기계 몇대를 가설하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수출업체나 봉제공장에서부터 하청을 받아 주문생산을 하는 소규모의 직조공장(흔히 “요꼬”라고 불리움)이 있다. 5~6명의 남녀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대부분이 남자와 미혼여성이고 기혼여성도 간혹 포함된다.

저소득층 부인들이 더 많이 종사하는 가내수공업은 이런 ‘공장’과는 달리, 집에서 ‘부업’으로 행하는 수공업의 형태이다. 제조품의 일부를 생산하거나, 부분품을 연결하거나, 완성제품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등의 공장생산의 일부과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봉투불이기, 실틀기, 조화만들기, 목걸이만들기 등 간단한 손작업도 있다. 거의 모두가 손도구를 사용하거나 전혀 도구가 필요치 않은 단순노동이다.

이들의 임금은 국내의 어떤 계층의 근로자들에게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대개 작업량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한 단위당 10원 내지 50원을 지불받는다. 일거리가 계속 있고 집안 일 외의 시간을 이 일로 보낼 때 한달 수입은 5천원에서 3,4만원까지가 된다. 그러나 항상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수출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기술습득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저열하여 그들의 노동은 경제구조내의 최하위에 위치한 임시노동에 머무르고 만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수입이 가계

에 크게 보탬이 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간식이나 반찬거리 구입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우기 집안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들 여성 가내수공업자들은 대표적인 노동착취의 대상이고, 더우기 고용주도 모르는 채 일집단에 속하지도 못하고 자기 따로 작업을 하는 소외된 노동자인 것이다. 일거리는 거의 전부가 그들의 지역밖으로부터 들어 오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중개업자가 지역안에 있기도 하고 혹은 업자가 가져오는 일거리를 직접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중간상인일 뿐, 실제로 이들 근로여성의 고용주는 수출업체이거나 중소규모의 공장인 경우가 많다. 가내수공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고용주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만 수출이 된다는 정도를 알 때가 있을 뿐이다. 그들의 더욱 커다란 관심은 그 어느 분제보다도, 그런 일거리가 계속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된다.

다) 개인 서비스업

파출부·청소부·차담이·때밀이 등 각종 개인 서비스업은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흔히 참여하는 일이다. 파출부·가정부 등의 일은 일종의 가사노동으로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고용되던 일들이지만, 청소부·차담이·때밀이 등의 일은 최근에 개발된 일들이다. 기혼여성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된 것은 미혼여성 노동력의 부족과 중상류층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생겨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게 된 결과이다.

이들 개인 서비스업은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가사와 동전의 일로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가정이나 목욕탕·빌딩 등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일이어서 중간의 소개자를 통해야 한다. 흔히들 이웃·친구·친척 등이 중간소개자 역할을 한다.

대체로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근로여성들에 비하여 수입이 나은 편이다. 하루의 일시간과 보수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하루 8-12시간 정도 일에 5천원에서 만원이상의 수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에 대한 댓가로 이들이 치루어야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동안 중상층의 사용자와 불평등한 대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한 이러한 관계를 피할 수는 없고, 특히 정액이상의 팀을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주와의 관계에 불만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용자를 찾거나 일자리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수요는 많다.

라) 건설노동

저소득층 남성들의 직종중에는 건설공사장의 단순노동이 가장 다수를 점한다. 미장·도장·목공 등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특별한 기술이 없는 막일꾼이 있다.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주민은 이웃·친척·친지들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에 대한 정보와 실제로 일거리를 찾는

다. 건설노동의 경우에도 일거리가 생기면 도급자나 갖가지 기능자를 십장으로 하여, 이들은 평소 안면관계가 있고 신용있는 막일꾼들을 모집하여 일집단을 구성하여 노동을 하게 된다.

주택이나 기타 공사에는 이러한 일집단이 다수 고용되며, 건설회사는 실제로 이들 일일고용 일집단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D회사는 그 공사를 위해 1981년 1년동안 연인원 151,000명의 일일고용노동을 고용하였고, 이들 중 9,600명이 여성이었다. 그들은 일일고용자이므로 일급외의 다른 특별지급이 없고 산업재해보험으로 심각한 상해에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여성이 건설노동에 많이 참여하게 된것은 최근의 일이다. 1970년만 하더라도 건설업 종사자의 1.4%에 불과하던 여성노동자가 1980년에는 8.6%로 증가되었다.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설업에의 여성취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들의 취업은 1970년대 한국건설업계가 국내외에서 붐을 일으켰고, 중동·동남아 등으로 건설노동자가 유출됨으로써 빚어진 국내의 남성노동력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건설계통의 남성노동자들은 기술자와 막노동자까지도 모두가 해외취업을 희망한다. 거기에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외취업을 하면 년중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국내에서의 노동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2년동안 계속 해외취업을 하면 저소득층 동네에 조그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준다.

국내에서 공사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노동자들은 소수의 도배·페인트 등 기술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막일꾼이다. 별기술 없이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막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일급은 3~5천 원으로, 남자노동자 임금의 70%정도를 받는 셈이다. 피조사자 중에는 여자집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서, 건설업 여성노동은 노동기회와 임금의 측면에서 볼 때 저임금 대체노동이라는 성격이 뚜렷이 엿보인다. 그들의 취업기회는 남성노동력 수급상황에 의존하며, 남성노동력의 수급상황은 건설업계의 국내외 경기에 직결된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도시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비공식 부문 노동은 그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을 지니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비교적 쉽게 기회를 창조할 수 있는 일들이다. 취업 기회는 개별적으로 창조하거나 친척 이웃등의 기존 비공식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특히 기혼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둘째로,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비공식부문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임금이 많고 인정된 직업을 기피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비공식 부문에의 취업에 전제되는 노동시장의 조건으로, 그들이 공식부문에서의 취업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로, 취업상의 제 조건에서 볼때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전체 사회경제구조 내에서 주변적 종속적 위치에 속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임금 일일고용에 의존하는 건설업자 및 회사의 횡포, 평균모 이상의 유통기업의 영세상 침해, 저

임금 가내수공노동에 의존하는 제조회사·수출업자·중간상인의 횡포 등은 공식부문자본력의 지배와 비공식부문 노동의 무력한 종속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

대부분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 간에는 취업상의 성별차별의 유형과 정도는 쉽게 표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노동의 경우는 취업기회 및 임금 면에서 성별 차별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 즉 여성의 건설노동은 남성노동력 부족을 전제로 하는 대체노동의 성격을 띠는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노동에서도 반드시 여성이 낮은 임금을 받는다.

5-6 가족·친척·이웃

저소득층 지역사회는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함께 사는 곳이다. 중상층지역보다 이웃관계가 긴밀하게 되는 이유도 빈곤생활의 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에서도 그들 특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부분 10년전후하여 타지역으로부터 그곳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생활의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도시의 빈곤상황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은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활 전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그들 생활의 내부적 단면은 외부인에게 쉽게 보이지도 않으며, 한두번의 면접에서 그들이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 장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지역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면접자료를 기초로 그들의 가족생활과 이웃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결혼관계를 알아보면, 대부분 장·노년층 즉 서울에 이주해 오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법적 혼인을 한 부부이지만, 이주 이후에 결혼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사실혼도 상당수가 나타난다. 고향에서 농사가 거의 없거나 적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형편에서 서울로 기회를 찾아 이주한 젊은 부인들은 대개 혼자서 공장등에 취직하여 지내다가 이웃의 중매나 연애로 결혼을 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사지역에서의 사실혼의 비율은 다른 연구*에 비

*정자환(1982).

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혼이나 이혼의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장만한 살림을 동네에서 팔고 방세를 찾아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 가출, 이혼할 경우에 쉽게 재혼을 한다. 빈곤층에서 이병을·상해를·사망율이 높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빈곤층에서는 가족원이 경제적 형편에 의하여 분산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지방을 돌며 상업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남편이 중동으로 취업하여 가 있는 경우 등이 있고, 성장한 자녀가 공장에 취직하여 기숙사로 나가거나 가출하여 이산되는 가족동도 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가족간의 유대가 강조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유대도 강하지만, 그들간의 긴밀한 접촉은 항상 경제변수에 의해 재규정된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 특히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그들이 현재의 생활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들이 성장하여 공부만 시켜 놓으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생활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이나 성장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 그들의 생각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성적에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책상 하나도 번번히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여러 식구가 방 하나를 함께 쓰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

기란 불가능하고, 부모들도 말로만 공부를 독려하는데 그치고 만다. 부모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부를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주위에서 볼 기회마저 드물어서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그것은 단지 남의 일로만 생각된다. 중간에 탈락하지만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야간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만 있으면 또 다행으로 여긴다.

부족한 환경조건을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듯이 어릴 때부터 용돈을 주는 것이 상습화되어 버린 가정들이 많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때에도 낮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학교비용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부모에게 여러가지 명목으로 돈을 타쓰는 경우도 있다.

불안정하고 제한된 수입에서 자녀교육을 시킬 때 자연 아들보다 딸은 그 희생이 된다. 여자는 고등학교를 가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다니는 도중에 중퇴 혹은 가출하는 예도 자주 있다. 심지어 국민학교에 다니는 여아들도 간혹 집안일을 도와야 하며, 졸업하면 곧바로 공장에 들어가 조수로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 점은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가치관과 남자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여자가 희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성장한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통제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정도나 세대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낮에는 밖에서 보내고, 자녀들도 중학생만 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는 시간외에는 거의 없다. 여러 식구가 함께 좁은 방에 사는 불편이 그들을 밖으로 내몰기도 한다.

부모들은 청소년 남녀가 물려 다니면서 혹시 사고라도 일으킬까봐 걱정을 하지만 그들을 실제로 감독하는 방도가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도 날이 춥거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동네에 나와서 지낸다. 좁은 골목에는 취학전 아이들로 항상 붐비고, 큰소리가 날 때 가까운 집의 어른이 간혹 얼굴을 내미는 정도가 그들을 감독하는 전부가 된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상호교류가 많다. 그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집 값과 방세가 싼 것도 있지만 근처에 친척들이 있어서 연줄로 찾아 오게 된 것이 더 큰 이유가 된다. 조사원이 직접 관찰한 55가구 중 한 동네에 친척이 없는 집은 두가구 뿐이었다.

그 지역의 부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친척관계와 이웃관계로 나눌 수 있다. 친척은 집을 구하거나, 결혼주선, 일거리 수소문 등을 서로 도와준다. 그러나 경제적인 교류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으며, 단지 같은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친척방문도 이웃간에만 자주 한다.

친척은 이웃동네 밖에 사는 사람들과는 거의 내왕이 없다. 친척관계도 계층과 지역의 범주에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친척관계도 좀 더 영속적인 이웃관계의 범주안에 넣을 수 있다.

반드시 친척이 아니더라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이웃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있다.

주택공간의 협소성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방문만 열면 다른 가족들과 마주치게 되므로 사생활이 보장되기가 힘들다. 자주 이사를 다닐 때나, 전혀 낯선 사람이 이사를 올 때에도 서로 도와주는 것이 관습이다. 물론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일부분에 속하므로 이웃과 서로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는 집도 한두집 있지만, 집에서 살림을 담당하는 주부나 시어머니들은 이웃과 끊임없이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친목제나 돈제는 주로 친구·이웃 친척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주는 말을 잘하고, 동네에서 경제적으로 중간은 넘는 사람들이 한다. 조사지역에서 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 주인아주머니다. 제를 조직하여 가게 운영비를 조달하였고, 자신의 경제력이 있으므로 제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여러 가게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젓돈이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보통 백만원짜리에 드는데 젓돈을 붓기 위하여 돈을 꾸는 경우도 많다. 젓돈 탄 것이 전세돈이 되기도 하고, 장사밀천, 이자놀이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를 드는 것은 목돈장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수입에 비해 무리한 제를 하게 되므로 항상 깨어질 염려가 있다.

이웃간의 제는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친목제의 경우, 14 명의 부인들로 조직되어 매달 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모여서, 중국집에서 찜뽕과 포도주, 과일을 먹고 논다. 이 친목제의 핵심구성원은 함께 세를 살았던 부인들 3명과 그 친구들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다. 친목제와 동시에 돈제를 함께 한다. 친따라 함께 놀러도 다니는데, 내부에서는 돈 때문에 불란이 많다. 이웃간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함께 돈제든지 친목제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구성원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도 제는 계속된다. 대부분 30대, 40대가 이러한 관계에서 주동이 되며, 이들은 부업 틈틈이 모여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한다. 이들간에는 돈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B동 일대에서 이웃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을 잃지 않는 것이다. 돈을 꾸면 반드시 높은 이자를 주어 갚아야 하며, 남의 보증을 썼을 때는 돈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남의 빚을 얻어서라도 보증 선 사람이 갚아야 한다. 보증을 썼다가 전세돈까지 빼서 갚은 예도 하나 있었다.

돈 이외에는 이웃간에 교환되는 물자는 거의 없다. 구공탄을 갈아주거나, 얘기를 봐주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부업을 하는 부인들이 함께 앉아 세타를 뜨거나, 일을 함께 하다가 점심을 함께 먹는 수는 있지만 이웃이 적극적으로 어울려 무슨 일을 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았다. 조사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일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인지 반상회가 열리지 않고 있었다. 반장의 이야기로는 동네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한다. 더구나 유동적인 인구동이 많아서 다수의 주

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지역의 사회생활은 몇 명의 부인들이 중심을 이루어 함께 친목계나 돈계를 하는 것이 고작으로, 그 구성원들도 일정하지 않고, 탈퇴나 입회가 자유스럽다. 그래서 개인들간의 연줄이 이들을 서로 뗄어지게 한다. 좁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유동적인 인구동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골동네와 같은 개방성이 존재한다. 모두 방문이나 대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살고 있으므로 누구나 언제든 지 드나들 수 있다. 물론 좀도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네 나들이하면서 잠고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주변의 이웃이 금방 알아버리고, 말 그대로 이웃집 수저의 숫자까지도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공간적 밀착도에 의해 파생된 공개성 때문에 지역사회규범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표면적인 인사예의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동네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이 지역내에서 일탈행위를 행하는 예가 드물다. 이점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 사회생활의 두가지 문제는 재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빈곤의 영속화와 재생산의 문제의 일부로 나타나는 제2세의 문제이다.

자녀교육은 저소득층 부인들이 생계이외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지만 실제로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결핍됨으로 해서 자녀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류층에 비견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용, 공부환경의 부적합,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및 통제의 불능 등 제2세의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나

아가서는 빈곤문화적 특성이 보일 가능성까지 배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썸로, 외견상으로는 친척과 이웃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지만 그 관계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부분적이며 경제적이라 점이다. 대부분의 이농민들이 친척들을 이웃에 갖고 있고 공간적으로 공개된 삶을 사는 이웃간에 안면관계와 상호교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방주선, 일거리알선, 빚알선, 계모임 등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친척과 이웃간의 상호관계를 강화한다. 그들의 생활에서는 본래의 혈연·지연관계보다 오히려 경제적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웃관계의 유지, 신용고수 등은 빈곤층의 생존을 위한 적응 전략으로써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5-7 결 론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생활은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노동, 과지출, 절약, 빚으로 연출되는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도시저변 근로여성의 노동은 그 자체가 빈곤 악순환의 일부이며, 남성노동력과 미혼여성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저임금의 개별노동·소외노동으로 존재할 뿐이다. 도시경제에서 이들 근로자의 존재나 기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소득은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빈곤층의 생존과 영속화에 기여하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 저소득층의 가정생활 및 여성들의 취업활동을 통해 살펴본 빈곤과 여성의 문제는 결코 별개의 문제로나 어느 개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며, 그것은 바로 불균형 성장의 문제, 불균형 분배의 결과인 것이다. 동시에 여성들의 삶과 노동은 같은 층의 남성들과도 대비되는 점도 나타났다. 저소득층 여성이 가족내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계를 유지·보완하는 이중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기회, 취업기회와 취업의 양태도 성차별·성분업의 형식으로 나타남으로써 남녀의 문제가 이 계층에서도 뿌리깊은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 성차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분적인 사업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회문제'가 아님은 명백하다.

6. 한국의 도시여성과 직업

- 종합과 전망 -

우리나라가 공업화·전문화를 산업구조의 기본으로, 민주·평등주의를 사회의 지배이념으로 받아 들여 소위 근대화를 추진해 온 지 어언 10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일어난 현저한 변화의 표적중의 하나로 여성들의 공(公)적 영역에의 진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모성, 보조적 역할외에 새로운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 사회학자(조형)와 두 문화인류학자(조혜정, 조옥라)에 의해 행하여진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여성들을 계층별로 나누어 그들의 직업활동을 위주로 여러가지 그들 나름대로 갖는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삶의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다루어진 세 집단은 각기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각기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나 크게 보면 한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이들이 모두 현존 사회구조와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단계, 즉 변화하는 상황에 이끌려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 세 집단 어디서도 아직 변화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가치의 출현은 보이지 않고 전통적, 또는 신전통적(neotraditional)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커다란 갈등, 예를 들어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려는 상호작용에 의한 갈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선 이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남을 보살피는 간호원, 가정과계통, 예술계통, 교사, 직장일을 가정일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약사 등에 다수가 진출하여 있고, 소위 남성적 영역에 진출한 경우는 일종의 자격증을 가진 이와 독자적 활동이 가능한 예술, 자영 기업체분야 그의 조직내 진출의 예외적 경우(은행지점장, 신문사부장)로 포괄된다. 이들은 실제로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모성과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근대적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르는 "이중역할"과 "이중가치"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약간씩 모자라는" 역할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연구실적이 낮다는 평을 듣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사무직 여성의 경우가 실은 전통적 가치의 고수가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인데,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장을 사회경험을 얻기 위한 장소로서 결혼전까지의 "간이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결혼이 생의 주목표인 이들이 직장내에서의 업무활동에서도 남성 동료, 또는 상관들이 기대하는 바대로의 "봉사정신"과 "여성적"부드러움을 발휘하는 보조역할수행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직업인으로서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도시저변의 근로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개 근로남성들의 손이 못 미치는 곳(과출부, 때밀이 등), 또는 그들이 원치 않는 일(건축공사시 잡일, 생상, 가내수공업)들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관념에 의하여 "안일"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바깥일"을 해야 하는 자신들에 대하여 "팔자가 나쁘다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주의적 태도를 고수하여 자신의 자식들에게 미래의 기대를 온통 걸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 빈민층의 자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계층이동을 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고 있으나 다분히 희망에 그치고 말 자식출세의 희망에 몸을 기대고 살고 있다.

여성들의 현대 사회생활 진출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저한 안존적, 적응적 태도는 여성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재의 주류문화(main stream culture)가 외형적인 변화상황에 맞추어 가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에서는 여성의 전문직, 사무직에의 진출의 전망을 여성자신의 태도적 측면과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끝에서는 도시저변 근로여성의문제를 다루겠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 현재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이들 중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소위 "성공한" 여성 집단이다. 이들에게 있어 직업은 선택적인 것으로 자신의 "자아 실현"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공헌"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로 간주 되어 온 가정의 역할과 동시에 직장활동을 한다는, 즉 두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부부간의 기대는 상호 크게 어긋나지 않은 신전통주의적 태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남편이 자신의 사회활동을 "허용"해 준 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장활동은 자연히 남편의 가정일예의 참여 (role-sharing)로 연결된다는 식의 새로운 부부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며, 원칙적으로 가사와 육아는 여성자신의 책임이며 그녀의 이중의 노력과 가정부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가 더 전문화되고 제 2차, 제 3차산업과 정보산업에 다수의 고급인력이 요구되면 여성의 대거 사회진출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그 때에 대비하여 또한 그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부장적 가족관과 신전통주의적 역할분담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1인 2역을 하지 않고 남녀가 1인 $\frac{1}{2}$ 역을 나누어 하는 것과, 또한 사회제도적으로 가사와 육아상의 잡다한 노동이 대행됨으로써 여성의 과중역할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선 얼마나 항상 자녀 곁에 있어야 하고 얼마나 자녀양육에 적합하다는가 유아원등의 제도는 나쁘다는 식의 전통적 가치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취업주부에게 비취업주부에게서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서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음이 첫걸음이다. 가정내 역할이 융통성있게 나누어져 이루어져야하며 제도적으로 가사의 짐을 덜고 자녀양육을 더욱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남편의 자녀양육에 있어 책임분담이 중요하다. 자녀가 출생할 때나 아플 때 모성휴가와 함께 부성휴가가 주어질 수 있는 방향

이 바람직하다. 삼대가 각자의 책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살고있는 경우를 취업여성의 경우에서 보게되는데, 산업구조하에서 삼대가 무리없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젊은 주부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대신 노령의 주부(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에게 가사운영권을 맡기는 방법이 있다. 이는 동시에 현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더욱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의 해결의 용이정도에 따라 사무직 여성 역시 직장을 평생적으로 삼아 사회활동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직장 진출의 문제 : 직장내에서의 문제를 편의상 가치차원에서의 문제, 태도의 문제(다분히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와 제도상의 문제로 나누어서 논의하겠다.

우선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대한 규범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급 인력개발을 열렬히 바라면서 그와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농경 사회에서의 분업을 고집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63세의 교사는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진출을 다음과 같이 상징화하여 말하고 있다. "다만 여자에게 걸땀되어 있는 것은 팔뚝힘 뿐이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팔뚝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앞으로 많은 것이 기계화된다고 하면 그런 세상에서는 기계가 팔힘을 대신할 수도 있으니 여성이 못할 일은 점점 적어질 것이 아니겠다는가? 나 자신 20세의 나이로 많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못하는 일(주: 광복운동을 위하여)

을 감히 해냈다. 요는 능력이 문제이며 두뇌가 문제이다. 여자에게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두뇌도 개발되고 능력도 개발될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을 남성의 입장에서만 보고 여성은 어머니 되기만을 좋아하고 아내이기만을 즐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거나, 전통적인 입장에서 여자는 안채에, 남자는 사랑채의 “배우”이어야만 한다는 식의 규범이 아직도 지식인 층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것은 인력개발의 측면에서나 인간의 자율성의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자도 자리가 없는데 왜 여자에게 직장을 주느냐”는 식의 사고 역시 남녀 역할분담에 대한 고정관념 위에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하였던 농경사회에서의 특권유지적 사고방식(즉 “제한된 부”의 개념)이 덧붙여진 형태로 보여지며 이는 현대사회가 새로운 영역의 개발과 창조를 그 발전의 기반으로 한다는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감정적 반응이라 하겠다.

실제로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진출이 “자리를 빼앗는”, 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이의 영역의 침해”로서가 아니라 좀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 보려는 협력적 노력으로 인식되는 사고방식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차원의 변화는 여성에 대한 태도상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태도상의 변화란 여자 직원을 항상 결혼과 결부시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으로 대함으로써 생기는 직업사회의 문제를 위시한 직장내 심리적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우선 남

성들이 직장내에서는 여성을 직장내 능률적 업무수행의 면에서 대
 하여야 하며 모성성, 또는 “여성적” 부드러움을 기대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여성들
 의 능률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말투나 버
 릃이 된 행동에 있어 좀더 사려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간단히 일어나는 고의적인 성적 희롱이나 악의의 농담등은 실제로
 심리적 산물이므로 쉽게 불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심리
 적 상태가 동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때문에 앞으로도 주
 목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
 록 남으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하며 한가지 확인의 방편으로 약자에
 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직장 여성들이
 이러한 피해를 많이 입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여성만이 아
 니라 약자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악육강식적
 대인관계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폐의 하
 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인맥주의, 명분주의와 권위주
 의가 여러면에서 생산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여야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문은 경영방식이 인맥위주적이고 권위
 주의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실적위주로 바뀔 때 더욱 넓어질 것이
 다.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러한 직업풍토를 바꾸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남녀 차별적 채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능력개발의 길이 막혀 있었던 여성들을 위하여 보상적 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의 노력은 하지않더라도, 법이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 평등주의를 주장하여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무리없는 역사의 진행을 위하여 현행되고 있는 많은 위헌적 제도(특히 채용시)들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내에서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춘 인사행정을 확립해 나가야 하며 특히 사무직의 경우 여직원들에게 직장에서의 그들 업무의 기여도와 직업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요망된다. 회사에서 성공적인 직업여성들 모델로 제시해 준다면 여직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자신의 의식의 변화와 노력 : 현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는 어느 누구, 어느 집단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기대에 맞추어 출추어왔다. 예를 들어 여성 자신들이 업무수행보다 직장내에서 기대되는 모성성과 "여성적" 부드러움의 발휘를 우선적으로 기꺼워하며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하여 결혼과 더불어 사회와는 결별하듯이 직장에 사표를 쓴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뚜렷한 철학이 중요하다. 자신의 직업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잘 해아려서 부지런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은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으로 이

루어졌던 조직에 시대의 요구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명감으로 일하여야 하며 그런만큼 어려움을 예기하고 극복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한 신문사 기자(31세)의 지혜를 빌면 "남성들은 고정관념에 맞추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러나 고정관념에 맞추어 행동하면 능력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적응하다 보면 팔려가는 당나귀 꼴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 자신이 자기의 직업관을 굳히고 자신의 스타일로 살되 조직과 화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 간의 협력집단(support group)을 형성한다든가 직장 내 여성간의 친밀한 유대망을 형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취업의 상황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경영직 여성연구: 국가 차원에서 또는 대기업이나 그외 여러 조직 내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영역에의 여성들의 진출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공적인 의미를 띤 권력이라든가 권위라든가의 사결정과는 거리가 먼 사적인 세계에 머물면서 남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사회화되어온 여성들에게 있어서 큰 조직체내의 행정이라든가 경영이란 생소한 영역이다. 그러나 100년 남짓한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조직체 내에서 경영직을 맡아 왔고, 직접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경영인이 탄생되어 왔으며, 이들 경영인, 정치인 등 주요 결정직 분

야에의 여성의 진출은 앞으로 일반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분야에의 여성의 참여를 돕기 위하여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2)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연구 및 자녀사회화의 연구:전문직·사무직 연구에서 결혼과 직장을 양립시키는 여성과, 결혼과 함께 직업을 포기하는 여성들을 주로 다루었다. 실제로 이들은 기혼과 미혼으로 대비되므로 자신의 가정을 실제로 갖게될 때의 문제를 비교해볼 수 없었다. 이를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로 나누어 보면 두 집단은 판이한 경험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가족성원들과 갖는 상호작용의 패턴도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는 어떻게 표준화되고 있으며, 이 이미지를 놓고 이 두 집단은 자기 자기의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하고 있는지, 특히 실제 자녀의 양육방식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올 세대의 자질과 성격형성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도시저변 근로여성의 문제는 중상층의 사무직·전문직여성의 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었다. 그들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 직업의식의 문제는 생존(生存)만큼 중요할 수가 없다. 빈곤한 수준이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과제이고, 안정된 직업에 취업할 기회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 기혼여성들이 그러한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공식 부문의

소득기회를 찾는 상황에서는 직업의식을 논할 여지는 없을 것 같다. 그들에게 있어 일은 결혼전까지의 "간이역"도 아니요, "자아실현"의 방식이나 "자부심"을 가질만한 여유있는 삶의 방식도 아니며 다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직업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극한적인 필요에 당면할 때 그들은 가사일을 단순화하여 "적당히" 해 내기도 하고, 소득활동에 여러 가족원이 참여하듯이 자녀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가사일을 나누어 하기도 하면서 해결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의 댓가로 빈곤생활의 재생산을 받을뿐, 기대만큼 자녀들의 전망도 밝지는 못하다.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취업상의 문제로서 보다 직접적인 것은 안정된 소득의 보장이다. 현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비공식부문의 소득활동도 그러한 활동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한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 댓가를 보장해주고 질병 및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비공식부문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증진시키는 방법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빈곤층 자신들이 원하는 빈곤악순환의 단절방식으로 직업교육, 취업기회제공, 사업자금제공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물론 어느정도 빈곤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개인적 성취에 의해서만이 상승이동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현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배려들은 사회구조에 근본적 변동이 없이 일부 빈곤층에게 빈곤탈피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부분적 처방보다는 구조적으로 빈곤의 요소를 제거하고 평등한 자원 재분배의 기제를 정착시키는 근본책이, 그리고 위로부터의 배려보다는 밑으로부터의 조직적 참여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보다 건전한 사회로의 탈바꿈을 위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그들 부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상층의 자녀와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조건에서 삶을 시작하도록 사회가 보장 한다든가, 위에 제시한 것처럼 비공식부문 근로자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적 평등화를 향한 노력들에서 항상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성(性)의 평등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해 둔다.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간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회적 평등과 민주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잔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 순 옥,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대 석사학위논문, 1972.
- 김 애 실, "여성 취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여성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1.
- 김 옥 려, 한 완상, 김 소희, "전문직 여성의 직업 및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 12집, 1973, pp.5~51.
- 변 화 순, "여성의 취업과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신 은 숙, "한국여자교수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이대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 유 연 숙, "한국경영인의 비서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9집, 1978, pp.357-404.
- 이 광 규, "전통적 가족구조와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민음사, 1980.
- 이 효 재, 김주숙, 「한국여성의 지위」, 이대출판부, 1976.
- 이 효 재, "여성경제활동 및 취업에 관한 연구: 1960~1970의 추이," 한국문화연구원「논총」제27집, 1976.
- 이 효 재, 이 동 원,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구조와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18집, 1972, pp.

273 ~ 317.

이 동 원, "한국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여성학」, 이대한국
여성연구소, 1979.

주 경 탄, "한국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 분석," 「한국
사회학」 제 14 집, pp.87 ~ 88.

주 정 일, 박영혜 "한국여성능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아
세아여성연구」 제 19집, 1980, pp.5-37.

정 자 환, "서울 변두리 가족생활의 변화와 연속," 한상복 편, 「한
국인과 한국문화」, 서울:신설당, 1982.

조 형, "도시빈곤과 여성의 경제활동," 과상경외, 「한국사회개발연
구」,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토 론 (요 약)

사회 : 이인호 (서울대)

I . 도시저변의 근로여성

임희섭 (고려대) : 먼저 비공식 노동이라는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극히 하기 어려운 참여 관찰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보완할 얘기로는, 첫째, 여성 근로자의 형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구의 주소득자로서의 여성근로와 보조적 입장에서의 여성근로로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연구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소득자의 경우에는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통계를 내본 바에 의하면, 전국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농촌 30 % 도시가 31 %, 그리고 도시의 빈곤가구의 경우 여러조사를 종합해 보면 남자가 있더라도 가구주의 직업이 무직인 비율이 31 %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빈곤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빈곤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도시가 12 %, 농촌이 17 %이니까, 비빈곤가구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높은 여성가구주 비율을 갖는 빈곤층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가구의 주소득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활동의 성격은 보조적인 근로활동의 성격과 상당히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채를 얻는 경우 제 자신의 조사를 보면 빚을 얻는 소스가 이웃이 67%로 발표자와 같다. 그리고 이자율을 보면 81%가 5부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며, 빚진 이유는 의료비 부담이 25%, 주택비가 18%, 자녀 교육비가 13%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발표자의 의견과 별다른 점이 없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이 옳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탈피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 자신은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취업기회가 많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기회가 많으면 잘 산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자녀에게 희망을 크게 갖고 있는데 이들이 자라면 더 잘 살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번째는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사업자금만 빌려주면 그래도 노점, 행상이라도 제대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 3가지 중에 무언가가 이들에게 주어진다 면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어차피 비공식적 노동이라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다.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다든가 기술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이 공식화되면 당장에 이들에게 타격이 크다. 따라서 비공식적 노동에 대한 구원의 길은 현재로서는 높은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심영희(이화여대) : 발표자의 연구를 내용별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빈곤과 경제활동 참여와의 관계인데, 발표자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즉, 이 말이 빈곤계층 전체의 악순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여자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인지, 만약에 이 것이 남녀 전체를 합친 의미라면 여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특수한 빈곤의 악순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빈곤의 악순환이 세대안의 악순환인지 아니며 세대를 바꾸면서까지 지속되는 재생산 관계인지를 분명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문화의 요소를 보겠다고 했는데, 문화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있었으면 한다.

두번째는, 취업 근로조건이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인데, 발표자는 비판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 3자의 판단이 주로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일이나 취업조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이것을

알아야 이들의 내적 응집성이 있는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세째로는, 여성의 취업활동이 자신과 가족, 친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그런 뜻에서 일상생활을 분석한 것이 대단히 의미가 깊다. 다만 더 자세히 밝혀졌으면 하는 것은 첫째로, 객관적으로 굉장히 희망이 없는 느낌을 주는 데도 이들을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힘이 무엇인가인데, 발표내용에서 찾자면 가족에의 희망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면 종교나 다른 요소가 없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일탈행위가 없다고 했지만 이른바 꼬방동네와 같은 가난한 동네는 일탈행위가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보았으면 한다.

다음으로는, 주로 일상생활의 외적 측면을 묘사했는데, 이들의 내적인 측면이랄까 일상생활의 의미구조에 주는 영향등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이들이 자신의 취업조건이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이들이 과연 집단으로서 어떤 내적인 응집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된다는지 아니면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끝으로 대책의 문제에 관해 언급이 없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연구의 이론적 모델이 저시적임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좀더 명시해서 통합성이 있게 했으면 좋았
겠다고 생각한다.

한상복(서울대): Complete 가족안에서도 남녀와 자녀들의 소득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되느냐가 중요하다. 근로자층에서 여성이 가계에 도움이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이 궁금하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가계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운영방식과, 이들의 가족생활이 어떤가 하는 문제, 즉 중상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계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궁금하다. 그리고 여성의 직업을 상·중·하로 구분했는데 관리직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사 무 직 여 성

부정남(성신여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몇가지 기술적·세부적인 질문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Table 1에서 취업여성들의 직종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중·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간호원과 교사가 상(上)으로 분

류되어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로, 이 연구가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103명의 취업 여성과 32명의 남성이 과연 자료로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물론 연구자는 그 이외의 자료가 내용상 모두 대동소이해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무직 여성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가 너무 적지않은가 생각한다.

세번째로,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로서, 통계적 표현 방식에 통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들면, 본문중에 23%, 71점, 17명 등 여러가지로 자료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여성의 의식구조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여성 취업에 있어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 여성들 자신들 스스로가 그러한 차별대우를 그대로 받아들여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하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직장인만큼 최대한으로 써비스나 하자는 생각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은 사무직 여성의 의식구조의 측면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오욱화 (태평양화학 소비자과장) : 현직 기업 종사자로서 또한 실제로 사무직과 전문직에 근무했던 여성으로서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자 한다.

발표자는 일반기업에서 여성채용을 꺼리는 이유로서 "여성의 일
에 대한 애착결여"를 들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자
신의 정신자세 또는 직업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
의 여성들이 직장을 결혼전에 잠깐 들렀다가는 간이역함으로 생
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일생을 전 남자들처럼 일을 파고 들
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다. 대체로 사무직 일은 서로 연속적인 상
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다음의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일에 대한 애착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직업
여성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여성은 직장에서
남자와 공존하지 않는 별다른 존재로 인식되거나 직장인이면서도
직장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성 자신의 책임이 보다 크다. 여
성들이 "직장의 꽃"인 시대는 지나갔다. 여성 역시 실력이
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스스로 책임있게 해
결해 나가려는 의식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호칭·개인실패를 및 대우·
승진 상의 문제점들은 여성 스스로가 하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선되기 힘들다고 본다. "여자가 겸참
지 못하게" 또는 "여자가 그런다고 해서 안될 일이 될까?"

하는 생각에 놀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고위 간부들과 접촉할 때도 별다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다음으로 여사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본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참고로 말해 보겠다. 일반기업들은 여성을 일단 고용하면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려 하지도 또한 그러한 기회를 전혀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성들을 아예 질시해버리는 게 현실이다. 여성은 각종 부서회의나 행사 계획 또는 프로그램 진행에서 으레히 제외시켜버리며, 일의 사후평가에서도 여성은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입사때부터 담당해 왔던 한두가지 고정 업무에 국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근무년한이 늘어 간부급이 되어도 공문서 하나 사업계획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 한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왜 기혼여성을 기피하는가에 대해 남녀를 대상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여 최소한의 지침정도를 마련한다면 실제적으로 취업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한편,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혼여성이 특히 문제될 때는 임신과 출산의 기간이 아닌가 한다. 신체적·정신적 상태 변화는 일에 대한 태만과 직장 분위기의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데, 기혼여성일수록 이러

한 세세한 면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지혜로운 현실적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에 대한 기업들의 채용·급여·승진의 기준 역시 개선 내지는 새신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임금급여 기준을 8.15 해방직후에 설정되었던 여교사와 여은행원의 급여 기준 규약에 현재에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경제 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임금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할 뿐아니라, 승진시험 자격을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옥라 : 부정남 교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통계자료중 상·중·하라는 구분은 직업별 취업자 통계를 분류하기 위한 임의적인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통계자료의 표현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연구에서는 표준집단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법상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의식 구조라는 것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을 일방적으로 "일에 대해 애착을 결여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단편적

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자신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와 기업의 다방면에 걸친 개선이라고 본다.

차형훈(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생): 먼저 주제선택에 관한 것으로서, 사무직 여성의 문제라 했을 때 왜 구태여 남녀간의 문제만을 가장 크게 부각시켰는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사무직 여성에게는 오로지 남녀간의 문제만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가장 큰 문제인지 의문이 간다. 주제 선택 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지나친 편견(bias)을 개입시키고 있거나 않은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사무원의 문제가 전반적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고 보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인류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느낀 방법상의 문제로서, 여기서 사용된 통계학적 조사보다는 오히려 여자사무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직접 조사·관찰하는 인류학적인 참여 관찰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의영(California주립대, 사회학): 모처럼 귀국했다가 좋은 논문을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이 남성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지위상의 문제가 특히 큰데, 이 연구 논문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그것을 잘 예

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전체 사회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 이러한 구체적 자료로써 밀받침이 되어 밝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해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서술(description)도 좋지마는, 사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가치관, 권위주의 또는 그 이외의 기초적인 가치관, 그밖에도 최근의 전체적인 사회변동 등이 현재 여성이 처해있는 위치나 상황과 어떤 관련을 갖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하는 것이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차별의 이유와 그 개선 방안을 정책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려는 연구 또는 필요하다고 본다.

조옥라 : 인류학적 연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실제로 작업현장에 가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위해서 몇몇 회사나 기업에 부탁해 보았으나 모두 꺼려해 하는 수 없이 간접적인 인터뷰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체들의 보다 개방적인 자세가 아쉬웠다.

다음 통계에 관한 문제로서, 인류학의 관심은 몇 퍼센트가

어떠하다는 측면보다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법칙 (Cultural rule)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보다 관심이 있다. 따라서 통계의 기술적인 면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국적인 통계와 더불어 좀더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병행된다면 이러한 결점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선생님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여성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축적이 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업적이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I. 전문직 여성연구

주경란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과 직업이라는 주제들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분들과 유네스코에 우선 감사드린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여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는데서 우선 이번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본다.

우선 연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근로직·사무직·전문직이라는 분류는 그 자체로서는 좋다고 생각되나, 전체적인 연구의 윤곽을 할 때 어떤 이론적인 틀 (frame)을 튼튼히 세운 다음 연구했으

보다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구성이 인류학과 사회학자로 되어 있어 질적인 접근방법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분야를 확대해서 경제학적·심리학적인 연구·분석이 이번의 연구와 같은 심층적인 연구와 더불어 포괄된다면 보다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전문직 여성연구의 목적을, 첫째 전문직여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둘째 직업관·인성(personality) 및 가정배경의 측면에서 볼 때 전문직여성으로서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발표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보다 넓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제도와 규범등의 영향을 밝히고, 그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 또는 인력수급의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사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15인의 전문직여성과의 면담, 45인의 인생역사 수집 및 질문지 작성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표본수를 줄이더라도 동일한 대상(Sample)에게 이러한 모든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통계자료의 분류에 있어서 상·중·하라는 분류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직종을 좀더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전문기술 직종들-예를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연과학자, 건축기사,

경영관리인등-을 포함시켜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신종 직종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왔던 직종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별도의 연구로서 보다 세밀하게 조사되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기본적인 생각(bias)이 "여성도 누구나 다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부유층의 여성은 직업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모든 여성이 과연 취업을 원하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가정의 기본적인 여건이 기혼여성의 취업을 어느정도 가능케 하는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진 성공적인 전문직업여성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으로서 여러가지 장애여건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사례(cases)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출생순위·남편의 태도 등 여러가지 변수중에서 발표자는 출생순위에 주목하여 맏딸이 중간이나 막내딸보다 전문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것이 보다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Sample)이 필요하다고 본다.

손덕수(이화여대): 앞서 토론자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특히 이번 연구논문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의미를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이 논문은 직업여성 중 특히 전문직여성이 이중역할의 과중한 부담이나 자기극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전통적인 여성관과 상반되는 독립심·자존심·자아실현의식이 투철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직업여성이 오히려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더욱 기여하는 바가 다대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로, 여성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사회화과정에 있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들을 "여성적" 또는 "모성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성(性)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별의 엄격한 구별을 지양하면서 여성 역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또한 도전적이고 개선 지향적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느낄 수 있었다. 셋째로, 전통적인 여성관과 여성의식이 퇴색해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자치적(autonomous)으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에 있어 50%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데서 그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곧 여성들이 예측적·보조적·의존적 정체성에서 점차 탈피하여 자립적·자치적인 여성이 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직 여성의 임금문제가 누락되어 있다. 전문직여성간(예를들면 의사와 간호원) 또는 전문직 여성과 일반남자회사원간의 임금격차문제가 논의된다면 더욱 종합적인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직여성은 모든 직업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power)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직업여성의 문제를 끌고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을 갖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발표자는 가정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현실분석에 그치고만 느낌이 든다. 결론 부분에 가서 공적이며 집단적인 문제해결의 방향 제시의 하나로서 전문직여성들 모든 여성의 이상형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혜정 : 경제적이든가 제도적인 측면을 좀더 다루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문화가 안되어 있는 만큼 나에게도 전문화가 안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은 가능한 한 내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키고 싶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인구문제 등등의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아서 다루고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대책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따로 하고 있다. 일부러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대책이나 방안이 너무도 많이 제시되어 공해같은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대책이 세워져 있다.(웃음)

한편, 이 세미나가 일반화되지 않은 "여성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자들만의 모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혹은 인문제를 다룰 때 택인이 몇명이나 앉아서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것을 일반적인 문제로 인식할만큼 충분히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고 본다.

VI. 종합토론

사회 : 종합토론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복합성때문에 자칫하면 일반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따라서 몇가지 전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여성운동적 차원을 넘어서서, 또한 남녀평등 문제를 이념적 각도에서 주장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의 연구들은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분야별로 다루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과 토론과정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의외에도 그것과 연관된 문제로서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은 좋다고 본다. 또한, 주제 발표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자 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해서 발언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홍두승 : (서울대) : 우선 여성의 문제를 여성이 다루도록 놔 두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웃음) 사회과학적인 객관성을 갖고자 한다면 현실 문제에서 조금 물러서서 좀더 냉철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 문제는 전문직 여성들의 문제점들인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동일한 사항들을 남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이다.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에 실력과 집안과 성격을 중요 요건으로 지적했는데, 남성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세가지 모두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실력이없고 집안이 좋지않고 성격이 나쁘면 남자건 여자건 발 붙일 데가 없다. 또한, 발표자는 여성의 경우 직업관이 결혼전에 확립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남자도 마찬가지이다. 장가들고 나서 무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간의 성역할 구분 문제라고 본다. 남녀간의 우열에서가 아니라 남성에게 보다 알맞는 직종이 있고, 여

성에게 더 잘 맞는 직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직업과 관련된 남성, 여성의 문제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떠나서 역할의 구분, 즉 보다 적합한 직종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혜정 : 63세된 어느 할머니의 말을 빌리면, 남녀의 차이는 팔뚝힘 뿐이다. 그런데, 지금 소위 현대 사회에서 팔뚝힘으로 되는 일이 무엇인가? 팔뚝힘이 드는 일은 남자들이 해도 좋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문화되지 않는 이유도 아직도 팔뚝힘만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여자들은 남자들 기회를 주라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취업 요건이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정말 질적으로 또한 정도에 있어 같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동원 (이화여대) : 조 형 교수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논문중 "도시저변의 근로여성들이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다만 빈곤층의 생존과 영속화에 기여하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구에서 받은 인상은 도시저변의 근로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근로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존이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들에게 힘이 있다면 생존을 영속시키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들의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경제행위 등의 생활이 절약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일단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10년전에 연구해 본 바로는 이들의 생활은 무계획적인 하루살이 생활로 특징지워졌는데, 절약한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행위 면에서 보면 보다 계획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구조가 계획적인 단계로 옮겨간 것인지 또는 안쓰니까 그것을 절약으로 해석한 것인지 묻고 싶다.

주경란(교육개발원) : 발표 논문에 보면 부록으로 질문지가 붙어 있는데, 특히 사무직과 전문직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과 전문직 여성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적실성(relevance)이 있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조혜정 :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활동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어느 대학원생의 물음에 답하자면, 대학을 나와 가정에서 안주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여성은 전혀 "Super Woman"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직 여성을 단순히 개인적 행복과 영달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의문이 간다. 많은 돈을 들여 대학까지 나와서 가정에만 있다는 것은, 물론 이것도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자라는 측면과 또한 사회로부터의 혜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

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문제는 "인간화"라는 차원에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관심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다원화된 사회 풍토가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여성문제는 보다더 인간적인 사회건설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조 형 : 몇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도시저변의 근로여성들이 빈곤한 상황에서 살면서도 꿈은 생활 향상에 있는데 결국은 매일 매일의 생존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절약 문제로서, 물론 없으니까 못먹지만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결국 돈을 쓸수가 없는게 그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로서는 굉장한 절약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과연 "절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저축을 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거론하는데, 이번 연구자들은 애초부터 정책제시를 피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여성을 underprivileged class로 전제할 때 정책을 내세워 봐야 별다른 영향을 줄 수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 중에 몇분이 "적합한 직종모색"이라든지 "잘 살아남도록 훈

런 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것처럼 현실에 잘 적응하는 여성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이상을 보다 높은 차원에 놓고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좀더 긴 안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성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을 누구나 똑같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적응훈련에 대한 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구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본다. 오히려 좀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남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발전으로 향한 변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부 록 1 〉

안녕 하십니까?

본 질문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인 취업여성의 실태조사를 위한 것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대담을 해 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 장 _____ 직 위 _____
전 직 _____ 연 령 _____
동거가족 _____

(여성응답자 용)

1.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1. 이 직장에 근무하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

① 0~1년 ② 1~2년 ③ 2~4년

④ 4년~10년 ⑤ 10년이상

2. 어떻게 입사를 하셨습니까? ()

① 공개 채용 ② 친지를 통한 채용 ③ 학교를 통한 채용

④ 기 타

3. 취직당시에 현재 직장을 얻는 대신 다른 것을 했다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른직장에 취업 ② 진학 ③ 결혼 ④ 집에 그냥 있다. ⑤ 기타

4. 봉급중 집에 얼마나 보태고 계십니까? ()

- ① 100 ~ 75 % ② 75 % ~ 50 % ③ 50 % ~ 25 %
④ 25 % 미만 ⑤ 전혀 안보탠다.

5. 직장을 얻는 데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극적 찬성 ② 소극적 찬성 ③ 소극적 반대 ④ 적극적 반대

6. 자신이 하는일이 직장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나 내가 꼭 안해도 된다.
③ 그렇게 중요치 않다.

7.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 결혼후에도 직장을 다니고 싶으십니까? ()

- ① 다니겠다. ② 남편의 허락을 받고 다니겠다.
③ 첫애 낳기 전까지 다니겠다. ④ 다니지 않겠다.

8.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거의 불가능하다. ② 해낼 수 있다. ③ 문제가 없다.

9. 직장에서 여자들을 채용하기를 꺼린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만 고르시오 (, ,)

- ① 일반적 직장난 ② 여자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많다.
③ 여성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결여
④ 여성의 가사책임에 따른 이중역할 ⑤ 근무기간이 짧다.
⑥ 후생시설비가 비싸다. ⑦ 능력부족

10. 여자상관 밑에서 일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

- ① 더 좋다. ② 상관없다. ③ 싫다.

11. 만약 여자상관 밑에서 일한다면 어떠한 점에서 남자상관을 모
 실 때와 틀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순서대로 4개만 고르시오.(, , ,)

- ① 사사로운 데 신경쓴다. ② 남들이 보기에 안좋다.
 ③ 결단력이 부족하다. ④ 자존심 상한다.
 ⑤ 부하직원 요구에 더 예민하다. ⑥ 문제해결하는데 센스가 있다.
 ⑦ 현신적이다. ⑧ 관용스럽다. ⑨ 남자상관과 별차없다.

12. 여자직원은 남자동료에 비하여 어떠한 특징이 두드러집니까?
순서대로 3개만 고르시오.(, ,)

- ① 눈치가 빠르다. ② 일에 의욕이 적다.
 ③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④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문제해결을 잘한다.
 ⑥ 남자와 별차없다.

13. 현재 다니는 직장내에서 어디까지 본인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직 그대로일뿐 ② 관리·경영직 ③ 최고경영직

14. 다음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 ①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 () ()
 ② 남편의 성공이 곧 여자의 성공이다. () ()
 ③ 부인이 직장에 나가면 남편의 출세에 지장이 있다. () ()
 ④ 결혼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자는 팔자가 센 여자다. () ()

II. 다음 질문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답해주시오.

1. 직장을 갖게 된 동기는?

- ①돈을 벌기위해 () ②결혼전까지 여가선용 ()
- ③자신의 능력 활용 () ④사회경험을 위하여 ()
- ⑤기 타 ()

2. 직장내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 ①능률적 업무수행 () ②봉사정신(서어비스) ()
- ③여성적 부드러움 () ④자상함 () ⑤기타 ()

3. 직장에서 남자동료들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①특히 유의할 점은 없다. ()
- ②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 ③봉사적이고 친절해야 한다. ()
- ④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 ()
- ⑤기 타

4. 직장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점을 순서대로 지적해 주십시오.

- ①자기발전 ()
- ②대인관계 및 사고 ()
- ③목돈마련 ()
- ④사회경험 ()

5. 현재 다음 생활중 어디서 가장 만족을 느끼시는지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① 직장일 ()

② 직장에서의 동료관계 ()

③ 친구와의 교류 ()

④ 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

Ⅲ. 1. 직장에서 남자동료나 상관이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한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2. 여성으로서 직장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렵거나 불만스러운 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 부 록 2 〉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인 취업여성의 실태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대답을 해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 장	직 위
전 직	연 령
동거가족	

(남성응답자 용)

1.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초급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이상

2.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0 ~ 1 년

② 1 ~ 3 년

③ 3 ~ 5 년

④ 5 년이상

3. 여자상관 밑에서 일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

① 더 좋다.

② 상관없다.

③ 싫다.

4. 만약 여자상관 밑에서 일하신다면 어떠한 점에서 남자상관을

모질때와 틀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순서대로 4개만 고르시오?
(. . .)

- ①사사로운데 신경쓴다.
- ②남들이 보기에 안좋다.
- ③절단력이 부족하다.
- ④자존심이 상한다.
- ⑤부하직원 요구에 더 예민하다.
- ⑥문제해결하는 데 더 예민하다.
- ⑦현실적이다.
- ⑧관용스럽다.
- ⑨남자상관과 별차 없다.

5. 여자직원은 남자동료에 비하여 어떠한 특징이 두드러집니까?
세개만 고르시오. (. .)

- ①눈치가 빠르다.
- ②일에 의욕이 적다.
- ③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 ④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 ⑤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문제해결을 잘한다.
- ⑥남자와 별차 없다.

6.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세개만 고르시오.

- ①일반적 직장난
- ②여자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많다.

- ③여성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결여
- ④여성의 가사책임에 따른 이중역할
- ⑤근무기관이 짧다.
- ⑥후생시설비가 비싸다.
- ⑦능력 부족

< 부 록 3 >

도시저소득층 가구조사 설문지

Ⅰ 가족상황

	가구주와의 관 계	성별	연령	교육	직 업	건강 상태	비동거자의 주거지
1							
2							
3							
4							
5							
6							
7							
8							
9							

응답자: ○표시

살림맡는 사람: ×표시

② 가구주의 취업경력

가) 취업경력

	시작연령	기간(년, 개월)	직업 (상세히)	지 역	기타 특기사항 (결혼, 출산)
현재 ↓ 최초					

서울로 이사온 때의 연령 : _____ 세

나) 현재 '무직'인 경우

1. 실업이유 : () 건강 () 실직 () 가사 () 기타

2. 현재 '구직중'인가? () 그렇다. () 아니다.



3. 원하는 일 : _____

4. 구직방법 : _____

③ 응답자의 취업경력

가) 취업경력 (응답자가 가구주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시작연령	기간(년,개월)	직업(상세히)	직업	기타 특기사항
현재 ↓ 최초					

서울로 이사온 때의 연령 : _____ 세

나) 현재 '무직'인 경우 (응답자가 가구주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1. 실업이유 : (㉠) 건강 (㉡) 실직 (㉢) 가사 (㉣) 기타 _____

2. 현재 '구직중'인가? : (㉠) 그렇다. (㉡) 아니다.

↓

3. 원하는 일 : _____

4. 구직 방법 : _____

다) 가구주와 응답자의 해당 사항 기록

1. 종사상의 지위

(㉠) 사업주 (㉡) 자영업주 (㉢) 피고용인 : 상용고, 일고 (㉣) 가족종사자

고용인수 : 명, 고용인 없음.

사업자금 : 약 원
 자금출처 :
 영업허가여부 : 허가, 무허가
 연간세금액 : 원
 월순수입액 : 원
 수입많은시기 : 월
 수입변동요인 :
 1일근로시간 : 시간

직장명 :
 직장규모 : 고용원 명
 월수입 : 원
 취업알선자 :
 1일근로시간 : 시간

사업주와의 관계 :
 1일근로시간 : 시간
 사업특성 :

2. 현재 직업에의 만족도

(㉠) 대단히 만족 (㉡) 만족한 편 (㉢) 불만인 편 (㉣) 대단히 불만

* 만족(불만)의 이유 :

* 다른 일을 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 그 일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 :

④ 가구주의 결혼관계

가) 결 혼

(ㄱ) 미혼 (나) 기혼(유배우)
남편 부인

(ㄷ) 별거, 이혼 (리) 사별

1. 초혼, 재혼 _____
2. 혼인연령 (초혼) _____ 세 _____ 세
(재혼) _____ 세 _____ 세
3. (현재의 혼인관계) 어디서, 어떻게 만나, 얼마간 교제했나?

결혼식 여부 : 했다, 안했다.

혼인신고 여부 : 했다, 안했다.

나) 자녀출산 (부인 위주로)

1. 총출생 자녀수 :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2. 현재 생존자 :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3. 희망 자녀수 :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4. 피임여부와 방법 : (가) 안한다 (나) 남편 수술 (다) 부인 수술
(라) 루프 (마) 피임약 (바) 콘돔

다) 자녀에 대한 기대

1. 희망 교육 수준 : 아들 _____, 딸 _____
2. 희망 직업 : 아들 _____, 딸 _____

⑤ 가계와 생활 주변

가) 가구 소득 ('82 년 4 월)

소득자	월소득액	소득원

월 생활비 : 약 _____ 원

(㉠) 사업 (영업) 소득 (㉡) 임금 (㉢) 연금

(㉣) 친족 보조 (㉤) 정부 보조

* 생활 보호 대상 가구 여부 : (㉠) 생활보호대상가구 (㉡) 영세가구
(㉢) 준영세가구 (㉣) 일반가구

나) 저축과 부채

1. 저축 : 어디에 ? _____

얼 마 ? _____

2. 빚 : 누가 ? (1) _____ (2) _____

누구에게서 ? _____

얼마 ? _____

갚는 방법 _____

(이자포함)

다) 주 택

1. 소유관계 : (ㄱ) 자택→대지 (허가, 무허가), 건물 (허가, 무허가)
(ㄴ) 전세→전세금액 : _____ 원, (허가, 무허가)
(ㄷ) 월세→월세금액 : 보증금 _____ 원, 월 _____ 원
(허가, 무허가)

2. 사용 방수 : _____ 개

라) 생활정도 비교 전망

1. 10년 전과 비교하여 생활이 : (ㄱ) 나아졌다. (ㄴ) 같다.
(ㄷ) 못해졌다.

그 이유 : _____

2. 앞으로 우리집 생활은 :

(ㄱ) 나아질 것이다. (ㄴ) 비슷할 것이다. (ㄷ) 못할 것이다.

그 이유 : _____

마) 이웃 관계

1.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친한 사람의 수 : _____ 명

(ㄱ) 친척 _____ (ㄴ) 이웃 _____ (ㄷ) 일관계 _____

2. 이 동네에서 싸움이 나는 주된 이유 :

바) 태 도

1.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구 탓인가?
(가) 개인 (나) 사회 (다) 모두
2. 우리나라 사람은 법을 잘 지키나? (가) 그렇다 (나) 아니다
3. 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은? (가) 잘 사는 사람 (나) 못 사는 사람
4. 우리나라에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보다 많은가?
(가) 그렇다. (나) 아니다.
5. 부자들이 잘 살게 되는 이유는?
(가) 부지런해서 (나) 착해서
(다) 운이 좋아서 (리) 사기를 잘해서
(미) 보호를 잘 받아서 (비) 기타: _____
6.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가) 자신 (나) 나라 (다) 어려운 사람들
7. 관청이나 공무원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주나?
(가) 그렇다. (나) 아니다.
8. 관청이나 공무원은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나?
(가) 그렇다. (나) 아니다.
9. 정부에 전의하고 싶은 사항
(1) 취업관계 : _____
예 : 기술교육, 직업보도소, 취로사업
(2) 개인, 가족관계 : _____
예 : 건강, 자녀교육
(3) 지역사회관계 : _____
예 : 상하수도, 양성화, 교통불편, 오폐물, 탁아소

세 미 나 참 가 자 명 단

<무순>

일시 : 1982. 11. 13 (토)

장소 : 유네스코 국제회의장

1. 사 회 자 :

이인호 (서울대 서양사학과)

2. 토 론 자 :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과)

심영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강사)

부정남 (성신여대 일반사회학과)

오옥화 (태평양화학 소비자과장)

주경란 (한국교육개발원 기초연구실장)

손덕수 (이화여대 여성학과대학원 강사)

3. 일반 참가자 :

한상복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장)

홍승직 (고려대 사회학)

이동원 (이화여대 사회학)

한정자 (이화여대 여성학)

유의영 (California 주립대 사회학)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

강명자 (노동부 부녀소년과)

변희남 (서울시청 복지과장)

김정한 (국립여성복지원 지도과장)

최성자 (국립부녀직업보도소)

이정근 (직업훈련연구소 소장)

박국자 (서울시립부녀복지관 관장)

고경미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강문희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강정숙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신은희 (대한여학사협회)

박미호 (주부클럽연합회)

이근자 (가톨릭여성연합회 총무)

조의제 (삼성인력관리위원회)

김훈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

이난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민속연구실)

김홍숙 (인구보건연구원)

차형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지역사회보건개발위원회)

조항원 (가족계획협회)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임원:

박봉식 (사무총장)

정두용 (교육과학부장)

김상균 (사회과학과장)

이구표 (사회과학과 간사)

